

돈강 하류 코이수그 고분군
분묘 그룹의 문화 계통
-흑해 북안 순동기~청동기시대 초기 쿠르간 고분군 연구-

야첸코 V. S.*

<목 차>

- I. 머리말
- II. 코이수그 고분군 유구 소개
- III. 코이수그 고분군 연구사
- IV. 문화 계통 분석
- V. 맺음말

국문요약

본 논문은 코이수그 쿠르간 고분군 매장유구 그룹에 대한 것이다. 코이수그 고분군에 대한 분석과 과거 행해졌던 연구는 이 매장유구 그룹을 마이크로프-노보스바보드넨스케인 세베르노이, 쿠모-만느치 계통에 포함시킨다. 매장의례의 통일성에도 불구하고 매장유구는 그룹 내부에서 두 개의 하부 구조로 나뉘짐을 볼 수 있다. 적은 유구 수와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차이가 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다. 유구 편년에서 명확한 차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쿠르간 제 5호의 한 하부 그룹만 기원전 41세기 말 ~ 기원전 37세기 중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두 하부 그룹 모두가 마이크로프-노보스바보드넨스케 프세쿠프형에 속하므로 이런 차이점이 서로 다른데 기원을 두었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차이는 마이크로프 매장의례 단계에 원인을 둘 수 있다. 어쩌면 마이크로프 전통으로 의례를 행하는 것은 피장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주제어 : 코이수그 쿠르간, 마이크로프

* 러시아 Southern federal university 강사

I. 머리말

코이수그 고분군(Кой сугский курганный могильник)은 코이수그(р. Кой суг)강 왼쪽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도 1-2). 초창기 이 고분군은 1966~1971년, 그리고 1974년에 V. Ye. 막시멘코(В.Е.Максименко)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로스토프 국립대학교 발굴조사단에 의해 조사되었다.¹⁾

코이수그 고분군에서 발견되는 여러 시기에 걸쳐 조성된 분묘 중 제 5호 쿠르간 18, 24, 32호묘와 ‘라두트카(Радутка)’ 쿠르간 24호묘가 특별히 구분된다. 이 그룹의 문화계통은 문헌에서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 복합체가 마이코프 문화(май копская культура)²⁾와, 한편으로는 케미-오빈스크 문화(кемиобинская культура)와 비교되기도 하며,³⁾ 마이코프 문화와는 무관한 카스피해-

1) 고분군의 보다 자세한 성격과 위치, 쿠르간 그룹의 분류, 분묘 유구 그룹의 약술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에서 볼 수 있다. Максименко В.Е. «Некотор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й сугского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раскопки на Дону』. Ростов-н/Д., 1973. pp. 43-47.

2) Максименко В.Е.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эпохе ранней бронз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 СА. 1973. No 1. pp. 249-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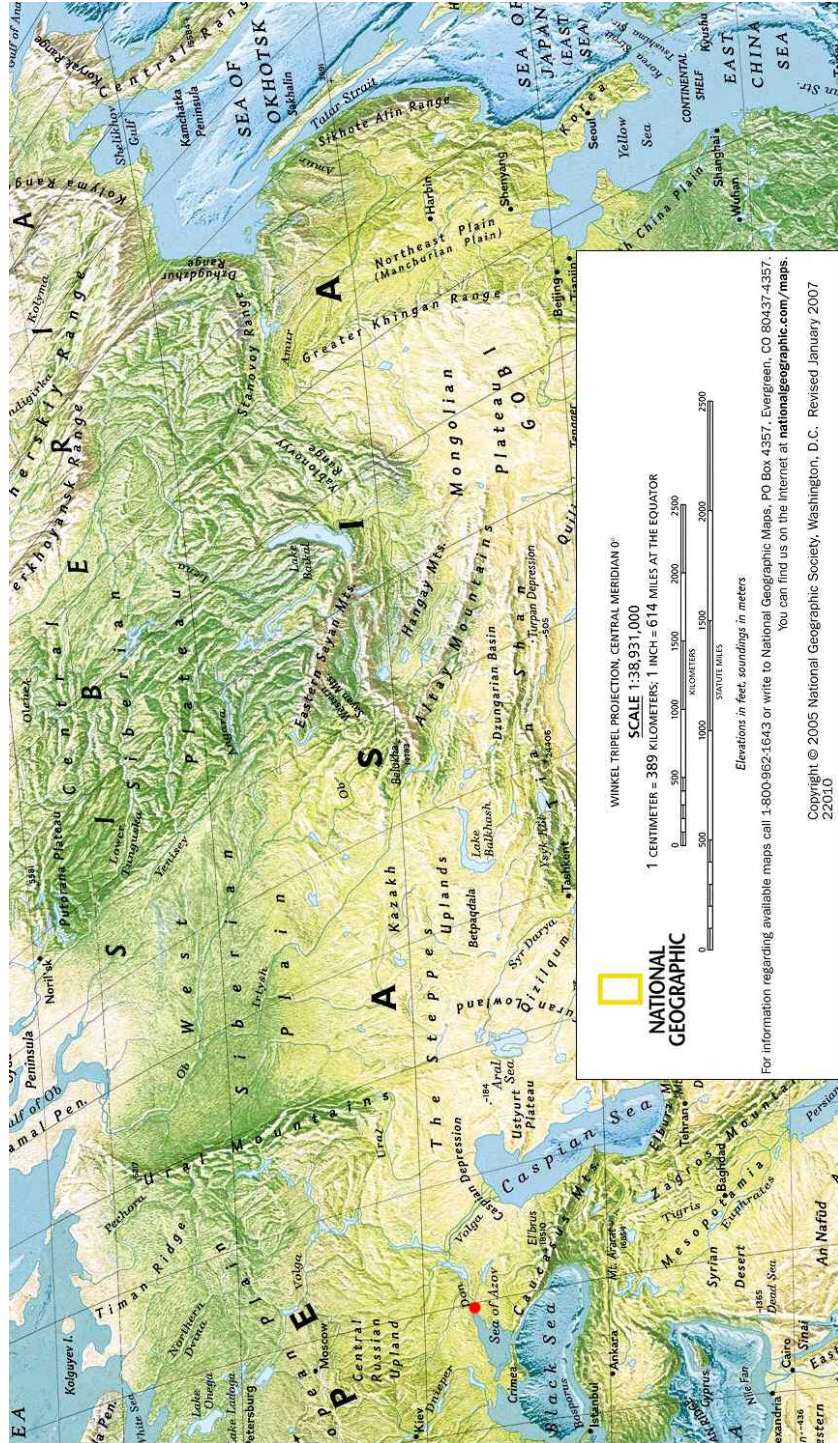
마이코프 문화-청동기시대 초기 고고문화이다. 마이코프-노보스바보드넨스크계의 주 영역은 쿠반강 남안, 쿠반강 북안 상류, 카프카스 미네랄노예 보드이 지역, 북 오세티아의 테르스크 사면, 카바르디노-발카리아, 인구세티야, 체첸 등 카프카스산맥 산록과 평지를 포괄한다. 연대는 기원전 5000년대 말에서 3000년대 초까지이다. 연구자들은 마이코프-노보스바보드넨스크계를 갈류가예브스크-세레긴스크(галюгаевско-серегинский вариант)형, 프세쿠프스크(псекупский)형, 돌린스크(долинский)형, 노보스바보드넨스크(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ий)형으로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Д «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 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М., 2004
Кореневский С.Н.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май 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М. 2008.

3) Максименко В.Е.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эпохе ранней бронз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СА』. 1973. No 1. pp. 249-254.

Кияшко В.Я.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эпоху энеолита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1974. pp. 148

케미-오빈스크 문화에 대한 개념은 A.A. 쉘핀스키에 의해 정리되었다. 이것은 순동기-청동기 문화로 다음과 같은 분묘유구 특징을 포괄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분류되었다. 석재상부구조, 목곽 또는 석곽, 광 형태를 따라가는 묘광, 벽화, 바닥에 보이는 자갈과 패각흔 등과 진흙액의 사용, 인간형상, 독특한 부장품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이 문화 영역은 크림반도로 한정되었으나 후에 흑해연안 스텝지구로 확대되었다. 유적 연대는 여러 저자에 의해 기원전 4000년대부터 1000년대 전반기로 편년된다. 현대 연구자들은 케미-오빈스크 문화 분류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없음을 적고 있고, 그 문화 자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므로 전술한 문화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Тошев Г.Н. 『Крым в эпоху бронзы, Запорожье, 2007』.



도. 1. 코이수그 고분군 위치

돈강 하류 코이수그 고분군 분묘 그룹의 문화 계통 5



сплошные горизонталы проведены через 20 метров
топографическая основа по карте масштаба 1:100 000
изд 1961 год с поправками данных на 1987, 88 гг.

도. 2. 코이수그 고분군. 제 5호 쿠르간과 '라두트카' 쿠르간 위치

흑해연안 스텝지구 유목민 역사 중 독자적인 “남방”계로 분류되기도 하였다.^{4/} 또한 최근 20년 간 출판된 연구물에서는 이 형식의 분묘유구가 몰도바에서 쿠반강(р.Кубань)유역까지 분포하는^{5/} 이른바 지보틸로브스코-볼찬스크계(животиловско-волчанский тип) 유적으로 지적되고 있다.^{6/} 카프카스산맥 북안 초기

^{4/}Кияшко В.Я.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эпоху энеолита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1974. pp. 114-116, 148.

^{5/}Кияшко В.Я. «Между камнем и бронзой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V-III тыс. до н.э.)». «Донские древности». Вып. 3. Азов. 1994. pp. 77, 80.

^{6/}Rassamakin Jurij Ja. Die nordpontische Steppe in der Kupferzeit: Gräber aus der Mitte des 5. Jts. bis Ende des 4. Jst. v. Chr. Archäologie in Eurazien. Bd. 17. Mainz: Verlag Philipp von Zabern, 2004. T. I. S. 57, 59, 127, 129. Abb. 48, 49, 102, 103.

지보틸로브스코-볼찬스크계 유적 분류는 Yu. Ya. 라삼킨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런 현상의 원류는 밝혀지지 않았다. 분묘유적은 흑해 연안 스텝지구에 분포하나 이와 연관된 취락유적은 스텝지구에 발견된 바 없다.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유적은 드네프르강 우안과 카프카스 북안 두 지역을 아우른 민족(부족)의 이동의 결과 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마이코프-노보스바보드넨스크적 요소의 돈강유역, 불가강 하류역, 그리고 크림반도로의 대거 유입이 확인된다. 한편 트리폴 문화의 카스페르프(каспервский тип)계 유입품은 크림 반도와 아조프해 연안 스텝지구, 어쩌면 카프카스 북안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한다. 전체적으로 흑해 연안 스텝지구의 순동기시대의 하한은 아직 문화 성격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마이코프 후기와 트리폴 후기의 융화되는 시기로 부를 수 있다. (Rassamakin Jurij Ja. Die nordpontische Steppe in der Kupferzeit: Gräber aus der Mitte des 5. Jts. bis Ende des 4. Jst. v. Chr. Archäologie in Eurazien. Bd. 17. Mainz: Verlag Philipp von Zabern, 2004.)

청동기시대 고고학적 문제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상기한 분묘가 어떤 문화 그룹에 속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

본 연구의 목적은 흑해연안 순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 고고학의 새로운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분묘 그룹의 문화 계통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분석하며 이 그룹을 코이수그 분묘 또는 타 문화의 형성과 연관시키는 연구자들의 결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돈강 하류 좌안에 위치하는 본 분묘그룹 특징을 보완하고자 한다.

흑해 북안지역은 전 시기에 걸쳐 여러 세계 문명이 접하는 곳이었으며, 이 지역이야말로 서양과 동양이 나누어지는 곳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연구자들은 몇몇 논문을 통해 이 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쿠르간과 유물에 대해 접한 바 있다.⁸⁾ 본 논문은 보다 이른 시기 흑해 북안지역에 관한 것으로 보편적인 인류 고대사 측면에서 문화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II. 코이수그 고분군 유구 소개

5호 쿠르간 18호묘⁹⁾ (부묘) (도 3,4:1-3). 묘광은 말각장방형에 중심축은 동북동-서남서로 하고 있다. 2단으로 구성된 유구에서 단의 너비는 0.3~0.7m이

⁷⁾Коре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 М., 2004;

Кореневский С.Н.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М., 2008

Шишл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М.,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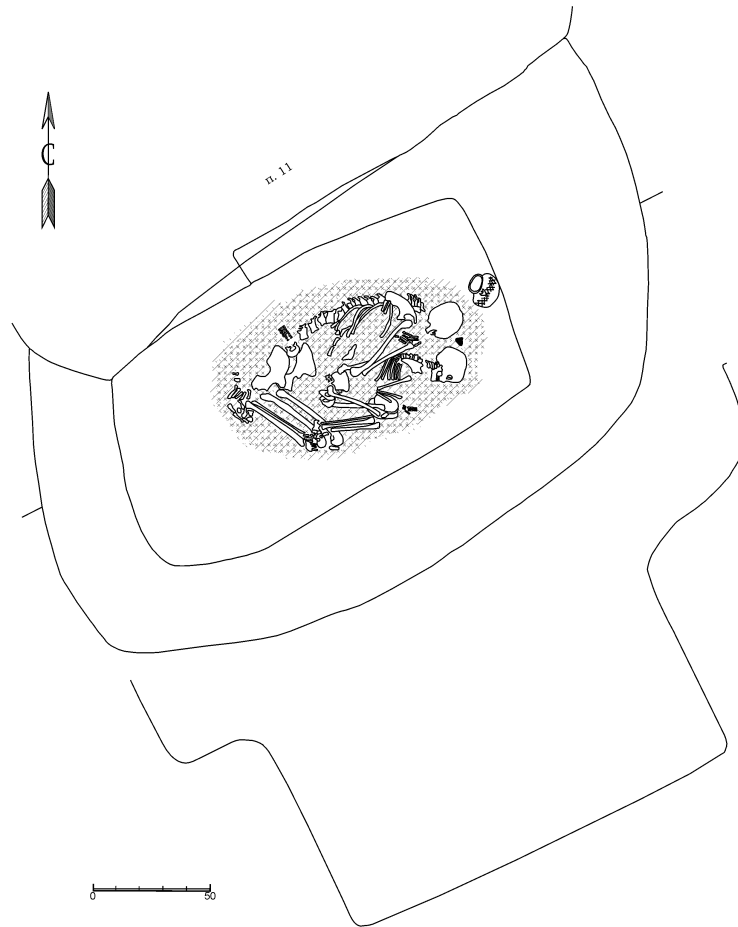
⁸⁾Maksimenko V. Ye., 李知恩. 『初期鐵器時代 南部 러시아 돈江流域의 遊牧民族 埋葬遺跡에서 보이는 東아시아系 遺物』, 『東北亞 地域文化의 國際性 照明』, 2006.

Maksimenko V. Ye., 이지은. 『돈강유역(남동유럽) 사르마트분묘 출토 동양유물』, 『석당논총』 38, 2007.

이지은, 막시멘코 V. Ye. 『초기철기시대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 출토 국자형 동기 시론』, 『文物研究』15, 2009.

이지은,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출토 漢式 사르마트鏡』, 『文物研究』18, 2010

⁹⁾Максименко В.Е. 『Отчет о работах 2-го отряд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 Азовском и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м районах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1968 г.』, 『Архив ИА РАН』1969, P - 1, No 3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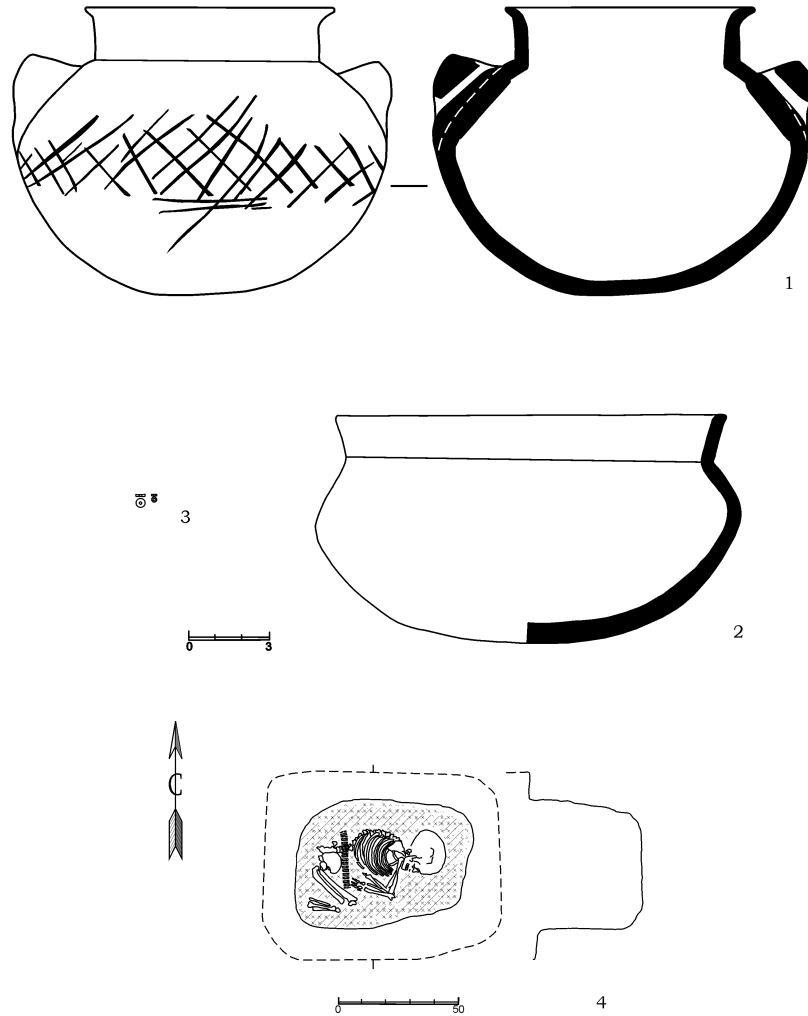


도. 3. 코이수그 고분군. 제 5호 쿠르간 18호묘

다. 묘광의 크기는 2.9×2.0m, 묘광 하부는 1.75×0.9m이다. 단은 동서벽으로부터 0.5m,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0.8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목질흔과 갈대가 덮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피장자는 두 명으로 성인과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골은 왼쪽 측면으로 굽혀진 채 놓여져 있었고, 두향은 동북동이다 (도 3). 팔꿈치는 접혀있고, 팔목은 머리쪽에 놓여있었다. 두개골은 변형된 형태를 하고 있다.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피장자의 족골은 성인 피장자의 무릎 관절부분에 놓여있다.

바닥에 인골 밑에서 부식토, 황토, 목탄, 석회가 섞인 흙이 뿌려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두께는 15~20cm가량이다. 발과 손부분에 황토가 집중되는 현상이 보인다.



도. 4. 코이수그 고분군. 제 5호 쿠르간 18호묘와 32호묘.
 1,2 - 18호묘 출토 토기; 3 - 18호묘와 32호묘 출토 구슬; 4 - 32호묘
 (AKM KII 17504/OA163: 1 - 328; 2 - 330; 3 - 440,454)

출토품: 두개골이 놓인 반대편인 묘광 동벽에 회색 단경호(도. 4:15)가 세워져 있었는데, 구연부는 외반하고, 견부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원저이다. 동체 상부에는 원뿔형에 수직으로 구멍이 뚫린 귀 2개가 있다. 동체부를 따라 격자문이 선각되어 있다. 부서진 부분을 보았을 때 연갈색을 띠고 있고, 모래와 중소입자 자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잘게 갈린 폐각석회암(?) 및 흰색 물질이 감입되어 있다. 기고는 10.6cm, 구경은 9.2cm, 견부 경은 8.2cm, 동부최대경은 13.8cm이다.



도. 5. 코이수그 고분군. 제 5호 쿠르간 18호묘 출토 토기,
(AKM KII 17504/OA163/328).



도. 6. 코이수그 고분군. 제 5호 쿠르간 18호묘 출토 토기,
(AKM KII 17504/OA163/330).

두 번째 토기는 오른쪽 전완골 아래,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피장자 오른쪽 슬개골 아래에 놓여있었다. 이 토기는 깊이가 얇은 단경호의 형태를 하는데 구연에서 동체부로 가는 지점은 잘 표현되었고, 원저이다. 기면은 마연되어 있다. 기면색은 적갈색에서 흑갈색까지 일정하지 않다. 태토는 흑갈색이고 파손된 부분에서 볼 수 있다. 흰색을 많이 띠는 부분은 석회(?)이고, 섬유질이 탄 흔적이 남아 있다. 기고는 8.4cm, 구경은 14.4cm, 경부경은 13.5cm, 동부최대경은 15.6cm이다.



도. 7. 코이수그 고분군. 제 5호 쿠르간 18호묘 출토 구슬.
(AKM KII 17504/OA163/440).

두 피장자의 골반 근처에 많은 양의 구슬이 발견되었다. 구슬의 직경은 0.35~0.2cm이고, 원공의 직경은 0.1cm, 두께는 0.05~0.07cm이다.

두 피장자의 두개골 사이에는 가공흔이 없는 흑요석편이 발견되었다.

5호 쿠르간 24호묘¹⁰⁾ (부묘) (도 9). 말각세장방형 묘광에 단이 설치되어 있다. 묘광은 동북동-서남서를 주축으로 한다. 묘광의 규모는 2.35×1.65m이다. 묘광 하부는 1.32×0.85m이다. 단의 너비는 0.3~0.5m이다. 단에서 바닥까지 깊이는 0.5~0.4m이다. 단 아래 묘광 하부는 직경 10.0~15.0cm 정도의 통나무로 덮여 있다.

인골은 왼쪽으로 굽힌 굴장이고 두향은 동북동향이다 (도 9:1). 팔은 굽혀져 있고, 손목이 두개골 근처에 놓여있다.

인골 아래에 무엇인가 깔려있었던 흔적이 관찰된다. 인골과 묘광 바닥 사이에는 석회, 목탄, 황토가 섞인 부식층이 있다.

¹⁰⁾ 위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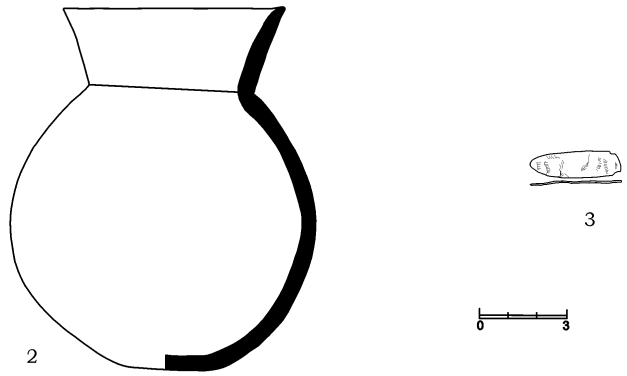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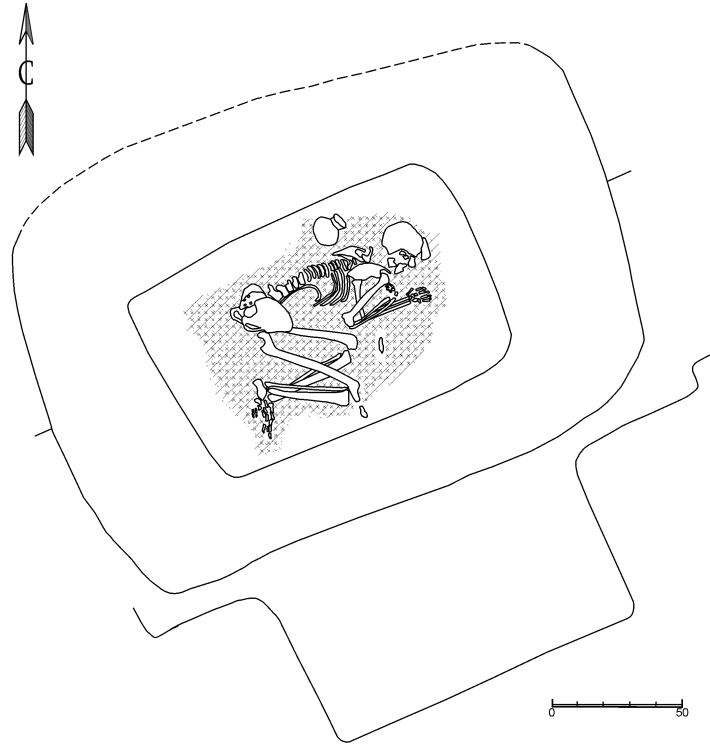
도. 8. 코이수그 고분군. 제 5호 쿠르간 18호묘. 구슬.
(AKM KII 17504/OA163/454).

출토품: 피장자 등 뒤로 견부가 잘 표현된 장경호가 세워져있다. 저부는 평저이나 약간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표면은 마연되어있다.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파손된 부분의 태토를 보면 흑회색에 하얀 석회입자가 간간히 보이고, 탄화된 섬유질 흔적이 대량 존재한다. 기고는 12.4cm, 구경은 7.5cm, 경부에서 구연부 사이는 5.6cm, 동부최대경은 10.4cm이다.

팔부분에는 3.2×0.9cm 크기의 유병식 소도자와 같은 형태를 한 단조동판 또는 청동판이 놓여있었다 (도. 9:3).

5호 쿠르간 32호묘 (부묘) (도. 4:34).¹¹⁾ 모서리를 줄인 세장방형 묘광은 동-서 중심축으로 한다. 묘광 내 0.15~0.2m 너비를 가지는 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¹¹⁾ 위의 자료



도. 9. 코이수그 고분군. 제 5호 쿠르간 24호묘.
 1 - 제 5호 쿠르간 24호묘; 2 - 제 5호 쿠르간 24호묘 출토 토기;
 3 - 제 5호 쿠르간 24호묘 출토 금속제 판
 (AKM KII17504/OA163:2 - 441:3 - 442)



도. 10. 코이수고 고분군. 제 5호 쿠르간 24호묘 출토 토기
(AKM KII17504/OA163: 2 - 441).

묘광 상부 크기는 1.0×0.9m이고, 형태는 잘 남아있지 않았다. 하부의 크기는 0.5×0.7m이다. 단에서 바닥까지의 깊이는 0.5m이다. 단 위에는 통나무로 된 덮개 잔존물이 보존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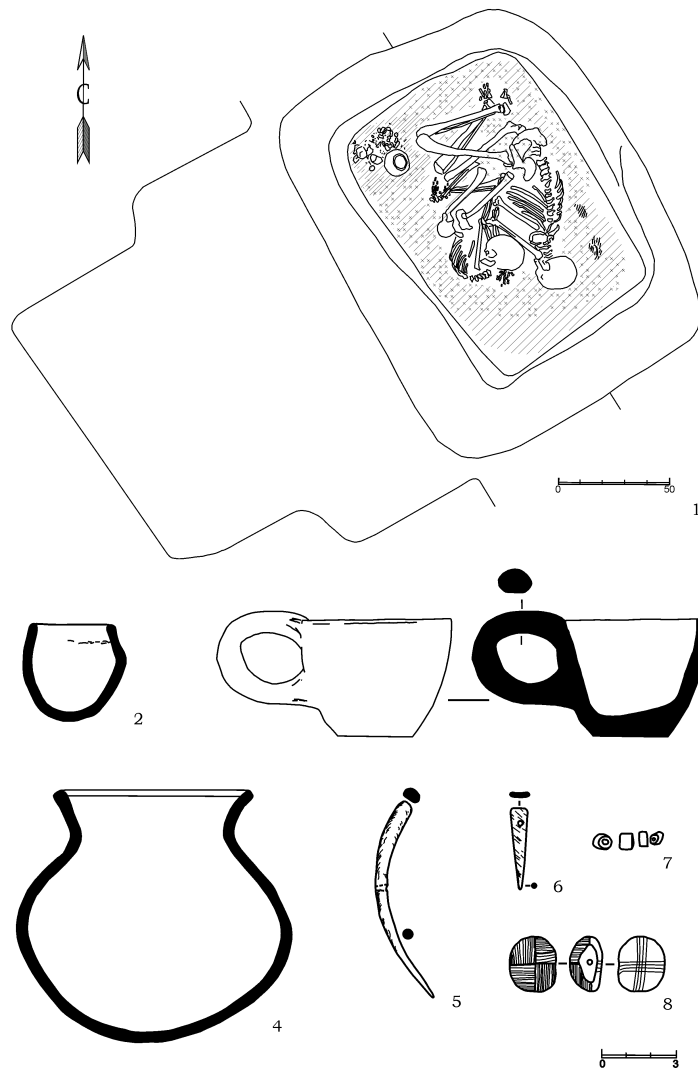
유아의 인골은 왼쪽 측면으로 눕혀진 상태였고, 두향은 동쪽이다. 팔꿈치뼈가 굽혀져 있었으며, 팔목은 허리부분에 위치하고, 팔꿈치는 몸통으로부터 돌려져 있었다.

인골 아래 바닥에서 황토, 석회, 목탄으로 이루어진 얇은 층이 발견되었다.

출토품: 허리부분에서 다량의 구슬로 구성된 요대가 남아있었다 (도. 4:38). 구슬의 직경은 0.35~0.2cm, 원공의 지름은 0.1cm, 두께는 0.05~0.07cm이다.

‘라두트카’군 1호 쿠르간 24호묘¹²⁾ (부묘) (도. 11). 묘광은 말각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북북서-남남동이다. 묘광 내에 너비가 0.15~0.4m인 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묘광 상부의 크기는 1.8×1.4m, 하부는 1.38×1.0m이다. 바닥에서

¹²⁾Максименко В.Е. «Отчет о раскопках в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м и Азовском рай-онах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1969 г.», «Архив ИА РАН». 1970. P-1, No 3873



도. 11. 코이수그 고분군. '라두트카' 쿠르간 24호묘.
 1 - '라두트카' 쿠르간 24호묘; 2 - 4 - '라두트카' 쿠르간 24호묘 출토 토기;
 5,6 - '라두트카' 쿠르간 24호묘 출토 골제 부적-수식;
 7 - '라두트카' 쿠르간 24호묘 출토 석제(?)와 골제(?) 관옥;
 8 - '라두트카' 쿠르간 24호묘 출토 석제(?) 인장-부적
 (AKM KII 17504/OA163:2 - 474:3 - 476:4 - 475; 5-8 - 1973 막시멘코에 의해)

단까지의 깊이는 0.6m이다. 단 위에 그을은 얇은 판과 갈대 덮개가 일부 잔존해 있었다. 묘광 충전토에서는 목탄, 태토에 패각석회암이 든 회색 토기 파편이 발견되었다.

피장자는 두 명으로 성인과 청소년에 해당된다. 굴장으로 인골은 서로 마주

보게 굽혀진 상태로 놓여있었다 (도 11:1). 성인은 두향을 남쪽으로 하고 좌측으로 눕혀져 있었다. 팔꿈치는 구부러져 있었고, 팔목은 머리 부분에 놓여있었다.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피장자는 오른쪽 측면으로 누워있었고, 두향은 남동쪽이다. 두개골은 성인 피장자 팔에 놓여 있었다. 팔은 성인 피장자 골반쪽으로 뻗어져 있었고, 손목은 자신의 슬개골 부근에 놓여 있었다. 두 개체 인골 골반에 탄 흔적이 있다.

바닥에는 황토로 덮인 탄화된 깔개 흔적이 확인되었다.

출토품: 동벽과 인골 사이, 성인 피장자의 두개골 근처에서 동물(멧돼지?) 송곳니(또는 일부)를 마연하여 만든 송곳-부적이 놓여있었다. 중앙으로 소공이 나있다. 길이는 8.5cm이고, 뾰족한 쪽의 두께는 0.5×0.6cm, 소공의 직경은 0.25~0.15cm이다.

묘광의 북북서쪽 모서리에 성인 피장자의 오른쪽 슬개골 부근에서 하천 모래가 쌓인 곳에 밀집하여 다음 유물군이 발견되었다.

1) 원저 토기 (도 11: 4: 14)는 외반구연을 가지고, 경부는 부드럽게 표현되었고,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 표면에는 빗살흔 또는 풀 같은 것으로 문지른 흔적이 관찰된다. 표면의 색조는 연황색에서 흑색까지 다양하다. 부서진 부분에서 태토는 흑색이고 풍화암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탄화된 유기물흔이 관찰되며 백색 집적물을 볼 수 있다. 기고는 10.1cm, 구경은 7.9cm, 경부에서 구연부로 넘어가는 지점의 직경은 6.5cm, 동부최대경은 11.0cm이다.

2) 소형 원저토기 (도 11:2:12). 직립구연. 토기 내부에 황토조각이 놓여있었다. 부서진 부분에서 보아 태토는 패각석회암질과 사질이 포함되었고 짙은 색을 띤다. 표면은 회흑색으로 마연되었다. 기고는 3.8cm, 구경은 3.4cm, 최대경은 4.1cm이다.



도. 12. 코이수그 고분군. '라두트카' 쿠르간 24호묘 출토 토기.
(AKM KIII17504/OA163/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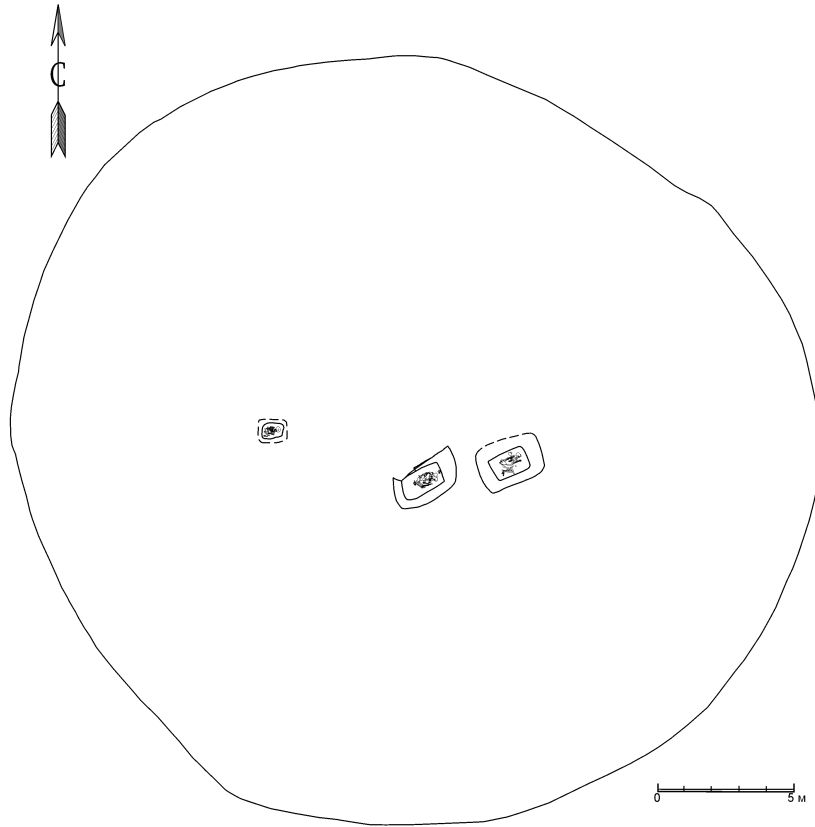


도. 13. 코이수그 고분군. '라두트카' 쿠르간 24호묘 출토 토기.
(AKM KII17504/OA163/476)



도. 14. 코이수그 고분군. '라두트카' 쿠르간 24호묘 출토 토기.
(AKM KII17504/OA163/475)

3) 컵형 토기. 평저에 고리형 파수를 가진다(도. 11:3 13). 파수 단면은 타원형 이고, 구연부 위로 약간 튀어나온다. 표면은 적갈색으로 마연되었다. 파손된 부분 으로 보아 태토는 흑색이고, 그 안에 대소 사질입자, 풍화입자가 섞여있고 탄화된 섬유질이 발견된다. 기고는 5.0cm, 구연경은 5.7cm, 저부경은 3.0cm, 파수 굵기 는 1.0×1.4cm이다.



도. 15. 코이수그 고분군. 제 5호 쿠르간. 18호, 24호, 32호 상호 위치.

4) 대형토제구슬 (도 11:8)은 흑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을 띤다. 반구형을 하고 있다. 아래 편평한 부분과 수평하게 원공이 뚫려있다. 아래 편평한 부분은 평행하게 선각된 각기 네 줄로 구성된 선이 중앙에서 마주치는 십자형으로 장식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돌출된 반대편은 네 구획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구획에 위치하는 선들은 서로 평행하나, 옆 구역에 선각된 선들과는 수직을 이룬다. 구슬의 직경은 2.2cm이다.

5) 관형 구슬 중 3개는 흑색이고, 1개는 흰색 상아질(?)로 되어 있다 (도 11:7). 길이는 0.4cm, 구슬 외부 직경 0.6cm, 원공 직경 0.2cm이다.

6) 부적-수식 (도 11:6)은 마연된 골기로 삼각형을 띤다. 길이는 3.3cm, 넓은 부분의 너비는 0.78cm, 두께는 0.3cm, 원공 직경은 0.15cm이다.

7) 편평한 자갈의 크기는 7.0×2.5×0.9cm이다.

8) 동물뼈: 거골 12개, 양 슬개골 5개 (어떤 것은 편평하게 마모된 것도 있다), 대형 동물의 발굽뼈 2개, 철갑상어의 척추 3개가 있다.

Ⅲ. 코이수그 고분군 연구사

위에서 살펴본 4개의 유구는 단을 가진 묘광과 같은 매장주체부 형태, 왼쪽으로 굽혀진 신체, 접혀진 팔꿈치와 피장자 얼굴 근처에 놓여진 팔목 등과 같은 피장자의 자세, 그리고 표면을 마연한 원저토기와 같은 출토품으로 인해 공통적인 매장형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례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 유구가 하나의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도록 하지만 이 그룹이 어느 문화에 속하는지에 관해서 이견이 있다.

1973년 처음으로 이 매장유구에 대해 검토되고 발표되었다.¹³⁾ V. Ye. 막시멘코는 본인의 논문 부연부분에서 위에 언급한 매장유구를 기원전 3000년대 말 또는 기원전 2000년대 초로 편년하고, 이 유구와 마이크로프 문화, 그리고 케미-오빈스크 문화에 속하는 유적과 유사점을 찾았다. V. Ye. 막시멘코는 몇몇 연구자들이 여기에서 마이크로프 문화 요소를 발견했음을 지적하였다.

1974년 돈강 하류 순동기시대(금석병용기)와 초기 청동기시대 유적 연구를 주제로 한 역사학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 V. Ya. 키아쉬코(В.Я. Кияшко)는 순동기시대 매장유구 가운데 제 6 그룹을 따로 분류하고 코이수그 고분군 매장유구가 이 그룹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⁴⁾ 이 그룹의 매장유구 분석으로 V. Ya. 키아쉬코는 이 그룹의 주체를 매우 발달된 목축경제를 가졌던 도래유목민으로 규정하였다.¹⁵⁾ 이 유구들은 카스피해와 흑해연안 스텝의 유목민 역사에서 아주 독자적인 문화상을 가지고, 이후 돈강유역 부족의 역사의 남쪽 계열로 발전을 계속하였다. V. Ya. 키아쉬코는 제 6 그룹이 제 5 그룹과 관련될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나¹⁶⁾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관계인지 밝히지 못하

¹³⁾ Максименко В.Е.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эпохе ранней бронз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СА』, 1973. No 1. pp. 249-254.

¹⁴⁾ Кияшко В.Я.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эпоху энеолита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1974. pp. 114-116.

¹⁵⁾ 위의 논문. p.148

¹⁶⁾ V. Ya. 키아쉬코는 제 5 그룹 분묘를 콘스탄티노프 취락 자료 (토기 제 3 그룹)과 북 카프카스 마이크로프 분묘와 함께 분류하였다.

Кияшко, 1974. 앞의 논문 pp. 104 - 114; 146 - 147

였다. 여기서 V. Ya. 키야쉬코는 매장의례 및 출토품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다고 함으로써, V. Ye. 막시멘코가 코이수그 분묘와 비교한 결론에 부분적으로만 동의하였다. V. Ya. 키야쉬코는 토기를 비교함에 있어서 마이크로프 토기가 연상되나 세부적으로 원칙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¹⁷⁷ V. Ya. 키야쉬코는 V. Ye. 막시멘코와 마찬가지로 케미-오빈스크계 토기를 동반하는 코이수그 분묘 토기에서 보이는 유사성에 주목하였다.¹⁸⁷

본고에서 돈강 하류 순동시대 유적에 대한 V. Ya. 키야쉬코 저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저서에는 자신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내용이 중심이 되면서 1990년대 발굴된 새로운 자료들이 보충되어 있다. 이 저서에서 V. Ya. 키야쉬코는 초기 쿠르간 유적을 4개의 그룹으로 통합하였다.¹⁸⁹ 그는 위에서 살펴본 코이수그 분묘를 제 4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런 형식의 매장유구는 몰도바에서 쿠반강 유역, 불가강과 돈강 사이 지역까지 거의 변화없이 분포하고, 사실상 취약 문화층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²⁰⁷ 이것은 돈강 유역에 있어서는 아주 짧은 시간동안 스쳐지나가는 성격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고 여겼다. 이 연구자는 이런 매장유구가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IV. 문화 계통 분석

이 매장유구를 케미-오빈스크 문화와 연결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케미-오빈스크 문화와의 유사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A. A. 쉘핀스키(A.A. Щепинский)와 Ye. N. 체레파노바(E.H. Черепанова)의 저서를 언급하였다.²¹⁷ 그 저서에는 크림반도 북부 문화의 이질적인 두 개의 매장유구 그룹을 살펴보고, 그 중 하나에서 트리폴과 마이크로프 토기와 유사한 토기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장유구가 위치하는 구역은 마이크로프 유적 분포와 상당히 유사한 케미-오빈스크 문화를 가지는 부족이 활동하던 남부 흑해연안의 넓은

177/Кияшко В.Я.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эпоху энеолита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1974. С. 148

187/ 위의 자료

189/Кияшко В.Я. «Между камнем и бронзой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V-III тыс. до н.э.)», 『Донские древности』. Вып. 3. Азов. 1994. р. 77.

207/ 위의 논문. р. 80.

217/ Щепинский А.А., Черепанова Е.Н. 『Северное Присивашье в V-I тысячелетиях до нашей эры』. Симферополь, 1969. р. 328

영역에 포함된다.²²⁾ 그러나 토기가 마이크로프 문화 자료와 유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 프리시바쉬예 지역(Северное Присивашье) 분묘 그룹과 코이수그 매장유구와 공통된 특징은 적다.²³⁾ 이들에게 동 또는 북동향, 세장방형 묘광, 팔목이 얼굴쪽으로 가도록 굽혀진 팔꿈치, 원저토기와 관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바쉬 지역 매장유구 가운데 단 한 기도 위에 언급한 특징을 갖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A. A. 웨핀스키와 Ye. N. 체레파노바가 살펴본 매장유구는 코이수그 그룹에 특징적이지 않은 요소를 더 많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타원형의 묘광, 묘광 내 단의 부재, 두향으로 서향과 북향의 채용, 대부분 경우 팔을 굽혀 손목을 얼굴쪽에 두지 않음, 적은 부장품, 토기에 서의 낮은 구연, 점열문이나 승문문과 같은 문양의 존재 등이다.

최근 자료에서는 케미-오빈스크 문화 분류에 대해 많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 문화의 특징이 구체적이지 않고 영역은 근거 없이 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 문화로 분류되는 유구, 유물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²⁴⁾ G. N. 토셰프(Г.Н. Тоцев)는 케미-오빈스크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인 ‘상자형’ 유구를 갖는 크림반도의 매장유구를 살펴보고²⁵⁾ 이 그룹에 해당하는 유적을 크림반도 산맥일대로 침투하여 재지 순동문화를 가진 부족의 일정한 요소를 흡수하고 카프카스 문화와도 접촉을 했던 아마족과 연결시켰다.²⁶⁾ ‘상자형’ 매장유구²⁷⁾ 그룹과 코이수그 매장유구와 유사점은 피장자의 두향이 동쪽이라는 점, 왼쪽 측면으로 누운 자세, 팔꿈치를 구부려 손목이 두개골의 얼굴쪽에 놓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장자의 자세나 두향이 항상 일정한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피장자 팔이 다르게 놓여 있고, 피장자가 바로 눕혀져 있거나 옆으로 눕혀졌고, 두향도 북서, 남동, 남서, 서향인 경우가 적지 않다. ‘상자형’ 묘제에서 출토된 유물은 코이수그 고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평저토기, 금속제 소도, 바늘, 팔찌, 도끼, 소형도끼, 끌, 그리고 골제핀, 석부, 흑요석제 판과 같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이밖에 차이점으로 문양이 시문된 유구 판석을 덧붙일 수 있고, ‘상자형’ 묘제를 채용한 주민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유목민 그룹은 비교적 ‘서쪽(우크라이나 스텝지구)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한다. 1974년 V. Ya. 키야쉬코가 코이수그 고분군과 제 4 그룹으로 분류된 돈강

22) 위의 책. p. 57-61.

23) 위의 책. p. 58-59. 도. 17-18.

24) Тоцев Г.Н. 『Крым в эпоху бронзы. Запорожье, 2007. pp. 59-93.

25) 위의 책.

26) 위의 책. p. 89.

27) 위의 책. p. 65-89. 도. 25-37, 40-42

하류 고분을 제외하고 몰도바에서 쿠반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에 특이성 없이 분포하는 고분 가운데 무엇을 언급했는지 명확하지 않다.²⁸⁾ 어찌면 V. Ya. 키야쉬코는 후에 라사마킨 J. J.(Rassamakin Jurij Ja)에 의해 제 3 그룹 C형식에 포함된 유구를 엄두에 두었을 런지도 모른다.²⁹⁾ 사마라(р.Самара)강과 몰로치나야(р.Молочная)강 유역에 특징적인 유구는 지보틸로브스코-볼찬스크 형식으로 나뉜다. 이 그룹은 한편으로는 트리폴 문화 요소(трипольские элементы)를, 다른 한편으로는 마이코프-노보스바보드넨스크적 요소(май 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ие элементы)를 가진다. 제 3 그룹 C형식에 코이수그 고분군이 포함되는데, 매장 의례상 공통점 (묘광의 형태, 피장자 자세, 두향)³⁰⁾과 부장품(독특한 장신구, 파수부원저토기, 기형과 문양의 차이)³¹⁾은 꽤 독특하다. 부장품에서 보이는 명확한 이질성은 코이수그 고분군을 지보틸로브스코-볼찬스크 형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위에서 살펴본 코이수그 분묘 자료는 마이코프-노보스바보드넨스크 주영역에 분포하는 유적과 아주 큰 공통점을 가진다. 마이코프 문화 유구는 세장방형 묘광, 목재 및 석재구조물의 부재가 특징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유구는 몇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는 목제틀을 가진 유구, 틀을 가진 통나무형 유구, 적석부를 가지는 유구가 있다.³²⁾ 유단식 유구는 묘광을 따라 돌을 쌓거나 석재, 목재시설을 갖는 유구가 재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변형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강하류 서안에 특징적이다. 피장자의 자세는 왼쪽 측면으로 누워 팔은 팔목을 꺾어 얼굴부분에 두거나 팔을 무릎쪽으로 뺀 것으로 마이코프-노보스바보드넨스크 분묘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동일하다.³³⁾ 부장품은 유구 모서리 부근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마이코프 문화 유적과 가깝다고 하는 매장 의례 중 하나이다.³⁴⁾

28) Кияшко В.Я. «Между камнем и бронзой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V-III тыс. до н.э.)», 『Донские древности』. Вып. 3. - Азов, 1994. p. 80

29) Rassamakin Jurij Ja. Die nordpontische Steppe in der Kupferzeit: Gräber aus der Mitte des 5. Jts. bis Ende des 4. Jst. v. Chr. T. I. II. Archäologie in Eurazien. Bd. 17. Mainz: Verlag Philipp von Zabern, 2004.

30) 위의 논문 T. I. S. 57, 59. Abb. 48, 49.

31) 위의 논문 T. I. S. 127, 129. Abb. 102, 103.

32) Кор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М., 2004. p. 17.

33) 위의 책. p. 19.

34) 위의 책.

코이수그 고분군 출토품은 마이크로-노보스바보드넨스크계 유적 출토품과 유사하다. 토기에서는 거울의 광택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의 마연, 태토에 광물성 입자(역질, 사질)와 유기질 감입, 그리고 무문 토기와 격자문 장식 토기를 들 수 있다.³⁵⁷ 기형 역시 마이크로프식 토기에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코이수그 고분군에서 출토된 모든 토기는 기형적 측면에서 코레네브스키 S. N.에 의해 정리된 마이크로프 토기 카탈로그에 포함된 기형³⁶⁷ 범주에 들어간다. 제 5호 쿠르간 18호묘 출토 토기는 두 개의 수직 파수를 갖는 토기로 코레네브스키의 4-2형식 DVR-1 그룹에 해당한다. 동일한 기형의 토기(수직형 경부, 외반 구연, 둥근 형태의 동부, 경부 아래 부착된 파수)는 다게스탄의 마이크로프 문화 유적에서 보이고 있다.³⁷⁷ 5호 쿠르간 18호묘 출토 완은 둥근 동체부, 원저로 1-3형식 ShU-2 그룹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다. '라두트카' 쿠르간 24호묘 출토 토기는 둥그스름한 동체부, 원저로 LO-4그룹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기형이 마이크로프 LO-4그룹의 토기를 그다지 연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S자형의 구연부 형태, 중간 크기의 경부, 둥근 동체부, 원저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앞에 언급되었던 연관관계는 꽤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두트카' 쿠르간 24호묘 출토 토기를 LO-4그룹에 가깝다고 보는 또 하나의 특징은 태토에 함유된 광물성분이다. 소형토기 2-1형식에서 둥근 동체부에 파수가 없고, 원저나 평저인 것은 LO-1 그룹과 같다. 한편 2-1형식의 소형토기는 구연부 단면이 S형인데 반해 '라두트카' 쿠르간 출토 소형토기의 구연부의 안쪽 모습은 거의 직선 또는 사선에 가까울 정도로 약하게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LO-2 그룹 토기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코이수그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른 유물 가운데 마이크로프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 관형구슬,³⁸⁷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골제 송곳-부적(가운데 부분에 뚫린 구멍은 마이크로프-노보스바보드넨스크계 분묘에서 출토된 철제품과 유사하다).³⁹⁷ 그리고

³⁵⁷ 위의 책. p. 22.

³⁶⁷ 위의 책. p. 22.

³⁷⁷ Кенотаф Большого Миатлинского кургана; оградка Великентского катакомб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1983-Магомедов Р.Г. 『О комплексах май 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гестана, 『Горы и равнины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Кавказа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ие века』. Махачкала, 1991. pp. 17, 22. III. 3,6.

R. G. 마가메도프 (Р.Г.Магомедов) 역시 다게스탄의 파수형 토기를 코이수그 토기와 동일선상에서 보았다.

³⁸⁷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 М., 2004. p. 47.

³⁹⁷ 위의 책. pp. 47, 216. III. 90 (28-30)

서아시아 유입품으로 보이는 대형 석제구슬이나 도장-부적을 들 수 있다. 형태나 문양상 유사한 도장-부적은 우베이드 문화 자료에서 발견된 바 있다.⁴⁰⁾

매장의례상 코이수그 분묘에서는 피장자는 두향을 동쪽으로 하고, 좌측으로 누워있었고, 구슬로 구성된 요대가 있으며, ‘라두트카’ 24호 쿠르간과 5호 쿠르간 18호묘 토기 태토에 패각편이 소량 함유되었다는 점에서 마이크로프 분묘와 차이가 난다. 매장의례에서 보이는 이런 요소들은 非마이크로프계 요소가 존재함을 알려준다. 마이크로프-노보스바보드넨스계 요소가 아닌 특징은 재지 스텝지역 순동기문화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어쩌면 이 요소(두향을 동쪽으로 두는 것, 좌측으로 누운 자세)는 지보틸로브스코-볼찬스크 형식에 속하는 유적이나 크림반도의 ‘상자형’ 분묘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프와 스텝 부족 매장의례의 혼합은 마이크로프-노보스바보드넨스계인 세베르니이, 쿠모-만느치 주변에 특징적이다.⁴¹⁾ 코이수그 분묘를 마이크로프-노보스바보드넨스계인 세베르니이⁴²⁾와 비교시 다음과 같은 마이크로프 문화 주영역에서 보이는 않는 요소가 관찰된다. 1) 동쪽을 두향으로 하고 옆으로 눕혀진 자세,⁴³⁾ 2) 피장자가 좌측으로 굽혀져 있고 팔꿈치는 접혀있으며 팔목을 얼굴 부분에 두는 자세,⁴⁴⁾ 3) 동쪽을 두향으로 하는 것과 좌측으로 누워있고, 팔은 팔꿈

40) Антонова Е.В. 『Очерки культуры древних земледельцев Передней и Средней Азии. (Опы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мировосприятия)』. М., 1984. р. 181. III. 23 (10).

41) Корневский С.Н.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май 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М., 2008. р. 76

42) Кор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 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М., 2004. pp. 93-96.

43) 레브이 베레그 III (1966), 보스토치니이 만느치 고분군 16호 쿠르간 13호묘, 17호 쿠르간 11호묘, 샤라할순 6 고분군 2호 쿠르간 12호묘, 준다-톨가 제 1호 쿠르간 15호묘

Шипш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М., 2007. pp. 42 - 43, 46 - 47, 52 - 53. III. 15, 17, 19; 이파토토보 3 고분군 제 2 쿠르간 185호묘

Корневский С.Н., Белинский А.Б., Калмыков А.А. 『Большой Ипатовский курган на Ставрополье ка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эпохе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степной границе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Кавказа』, Ставрополь-М., 2007. pp. 69 - 70, 199. III. 59.

44) 초그라이스키 VI 고분군(Чограйский VI) 제 1호 쿠르간 2호묘

샤라할순 6 고분군 5호 쿠르간 7호묘

에브득(Эвдык) 고분군 4호 쿠르간 20호묘

준다-톨가 고분군 1호 쿠르간 16호묘

Шипш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

치부분에서 접혀있으며 팔목은 얼굴 부근에 두는 자세의 조합,⁴⁵⁾ 4) 그리고 구슬로 구성된 요대⁴⁶⁾이다.

토기에서도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관찰된다. 둥근 형태의 토기, 길고 외반하는 경부, 격자문이 그것이다.⁴⁷⁾ 코이수그 고분군 5호 쿠르간 18호묘 출토 토기는 사라할순 6 고분군 2호 쿠르간 17호묘⁴⁸⁾와 이파토보 3 고분군 2호 쿠르간 195호묘⁴⁹⁾ 출토 토기와 파수부분을 제외하고는 형태가 유사하다. 코이수그 고분군 24호 쿠르간 ‘라두트카’와 5호 쿠르간 출토 토기 태토에 보이는 패각석회입자는 마이코프 토기에서는 전형적이지 않다.⁵⁰⁾ 토기에 이런 혼합은 분쇄된 패각석회암

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М., 2007. pp. 45 - 48, 52 - 53. III. 17 - 19)

이파토보 3 고분군 2호 쿠르간 183호묘

Корневский С.Н., Белинский А.Б., Калмыков А.А. 『Большой Ипатовский курган на Ставрополье ка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эпохе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степной границе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Кавказа』. Ставрополь-М., 2007. pp. 65 - 66, 196. III. 56.

⁴⁵⁾ 무힌 II 고분군 제 5호 쿠르간 16호묘

Беспальый Е.И., Беспальый Г.Е. 『Курганный могильник Мухин』, 『Аксайские древности』. Ростов-н/Д., 2002. pp. 44, 93. III. 32;

준다-톨가 고분군 제 1호 쿠르간 14호묘

Шишлина Н. 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pp. 52 - 53. III. 19.

⁴⁶⁾ 만지키노이 I 고분군(만джикины I) 제 14호 쿠르간 13호묘,

에브득 고분군 제 4호묘 16호묘, 19호묘, 22호묘

Шишлина Н. 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pp. 44, 47, 49, 54 - 56. III. 16, 18, 21).

⁴⁷⁾ 레브이 베레그 III (1966), 보스토치노이 만스치 고분군, Шарахалсун 6-Шишлина Н. 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pp. 43, 46. III. 15, 17;

이파토보 3-

Корневский С.Н., Белинский А.Б., Калмыков А.А. 『Большой Ипатовский курган на Ставрополье ка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эпохе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степной границе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Кавказа』. Ставрополь,-М., 2007. p. 207. III. 67.

⁴⁸⁾ Шишлина Н. 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p. 46. III. 17 (11);

⁴⁹⁾ Корневский С.Н., Белинский А.Б., Калмыков А.А. 『Большой Ипатовский курган на Ставрополье ка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эпохе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степной границе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Кавказа』. Ставрополь,-М., 2007. p. 207. III. 67 (3)

⁵⁰⁾ Кор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 М., 2004.

질을 구성요소로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코이수그 분묘 출토 토기에서 보이는 적은, 어쩌면 유일한 사례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장인에 의해 패각질이 감입되었다면 마이크로프와 스탕지구 토기 제작 기술 교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여기서 과거 스탕지구의 전통적인 토기제작법이 아닌 마이크로프 토기를 모방했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패각립 혼입이 확인된 토기는 피장자가 두 명인 분묘에서 출토된다. 물론 보다 명확한 설명은 코이수그 쿠르간 출토 토기 성분 마이크로 분석 및 마이크로 문화 구분포지와 마이크로프-노보스보보드넨스크 유적 분포 지역 토기 제작기술 특징 비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코이수그 쿠르간과 마이크로프-노보스보보드넨스크 세베르니이 분묘 출토품과 유사성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예브드의 고분군 5호 쿠르간 11호묘⁵⁷⁾에서 출토된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골재 송곳-부적을 들 수 있다.

V. 맺음말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코이수그 고분군 분묘를 자신있게 마이크로프-노보스보보드넨스계인 세베르니이, 쿠모-만느치 분묘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코이수그 고분군과 마이크로프 고분군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매장의례에도 불구하고 라두트카 쿠르간과 코이수그 5호 쿠르간 분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보인다. 예를 들면 제 5호 쿠르간에는 동북동 또는 동쪽으로 하는 두향, 피장자 아래에 황토와 석회, 목탄이 포함된 부식토의 존재, 구슬로 된 요대, 비교적 두꺼운 골이나 등 또는 가슴 부분과 같이 피장자 상체부분에 늘어놓아진 공반유물이 그것이다. 라두트카 쿠르간에 있어서는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하는 두향, 피장자의 인골에 나타나는 의례에 사용된 불, 묘광의 한 모서리 피장자 발치에 밀집한 공반유물이 특징적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으로 피장자가 돌인 유구에서의 인골의 배치이다. 제 5호 쿠르간에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피장자는 성인과 동일하게 눕혀져 있는데 라두트카 쿠르간에서는 청소년 추정 피장자 팔은 자신의 무릎으로 뻗어져 있고 성인 추정 피장자와 서로 등을 지고 있는 배치를 보이므로 성인 피장

p. 23.

57) Шишлина Н. 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pp. 54-55. III. 20 (6).

자의 자세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런 차이는 한 그룹에서 보이는 매장형태 정석에서 약간 벗어난다거나 우연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만약 이것이 하나의 독자적 분묘 그룹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하나의 그룹이 두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매장형태 차이점 외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에 관해서는 적은 수의 유적 선택과 지역적 차로 인해서 아직 대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다.

유감스럽게도 코이수그 고분군 분묘는 방사성탄소연대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유구 간에 시기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 5호 쿠르간 소그룹 분묘 편년 지표로 격자문 마연토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토기는 사라할순 6 고분군 (могильник Шарахалсун 6) 2호 쿠르간 17호묘 (BP 5190±70 Cal. 4066 - 3942 BC),⁵²⁾ 레브이 베레그 III 1966 (Левый Берг III 1966) 보스토치니이 만느치 고분군 (могильник Восточный Маньч) 17호 쿠르간 11호묘 (BP 5095±45 Cal. 3877 - 3804 BC),⁵³⁾ 쿠다후르트 고분군 (могильник Кудахурт) 1호 쿠르간 1호묘 (BP 4930±60 Cal. 3773 - 3650 BC) 에서 보인다.⁵⁴⁾

이 토기를 아우르는 공통 특징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부와 외반구연을 갖는 기형, 그리고 격자문이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통해 편년된 유구 중 하나인 이파토토보 3 고분군 (Ипатово 3) 제 2 쿠르간 195호묘(BP 4610±140 Cal. 3516 - 3256 BC; BP 4410±170 Cal. 3350 - 2881 BC)⁵⁵⁾에서 유사한 문양이 시문

⁵²⁾ 위의 논문. pp. 46, 381. III. 17 (11). Tabl. 2.

⁵³⁾ 위의 논문. pp. 43, 381. III. 15 (13). Tabl. 2.

⁵⁴⁾ Корневский С.Н., Атабиев Б.Х., Аккизов А.Я., Хашироков А.Х. «Май копские погребения кургана 1 на р. Кудахурт в Балкарии»,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корр.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М., 2008. pp. 132, 147. Tabl. 1. III. 8(1).

⁵⁵⁾ Корневский С.Н., Белинский А.Б., Калмыков А.А. «Большой Ипатовский курган на Ставрополье ка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эпохе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степной границе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Кавказа». Ставрополь, -М., 2007. p. 207. III. 67 (3);

Корневский С.Н.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май 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М., 2008. p. 86. Tabl. 2a.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 코레네브스키 선생님께 이파토토보 3고분군 제 2호 쿠르간 195호묘 편년과 관련한 조언에 감사를 표합니다.

된 토기가 발견되었으나 경부와 구연부 형태상 차이가 있다. 이파토보 표본에서 연대 불일치, 적은 콜라겐으로 인하여 연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데다가 출토 토기도 코이수그 토기와 기형상 차이가 나므로 편년에 적합한 표준유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때 코이수그 고분군 5호 쿠르간의 소그룹 분묘는 BC 41 세기 말 ~ 37 세기 중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라두트카 고분군 매장유구 편년을 위한 표준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레네브스키 S. N.⁵⁶⁾에 의해 나뉜 마이코프-노보스바보드넨스크계 주 분포영역에서 하나의 지역성을 갖는 코이수그 고분군 마이코프 분묘 하부 그룹의 특징 비교가 이들이 다양한 기원을 가진다거나 타 지역에서 이주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매장 의례의 특징, 옆으로 누운 자세, 둥근 동체부와 원저를 갖는 토기, 파수와 마연 문양을 갖는 토기, 서아시아 유입품과 같은 유물의 존재, 뿐만 아니라 두향 남향, 매장 의례에서 보이는 불 또는 분묘 내 목탄, 묘광한 귀뚜이에 밀집한 유물과 같은 한 그룹에서 하부 그룹을 분류하는 것으로 마이코프-노보스바보드넨스크계 프세쿠프형 두 개 하부 그룹으로 나누게 한다.⁵⁷⁾ 위에 언급한 일련의 요소들은 갈류가예브스크-세레긴스크형(галюгаевско-серегинский вариант)의 특징이다. 코레네브스키 S. N.⁵⁶⁾는 이 두 버전 토기의 유사성을 지적하였으나 둥근 동체부와 마연 문양, 그리고 어찌면 외래품이 프세쿠프형(псекупский вариант)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보았다.

코이수그 고분군 여러 소그룹에서 마이코프-노보스바보드넨스크계 매장 의례 단계에 따른 차이가 보인다. 즉, 라두트카 쿠르간 매장유구에서는 마이코프 의례 특징이 많이 남아있으나 제 5호 쿠르간에서는 다른 문화 요소의 영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면 마이코프 전통에 따라 의례를 행했던 것은 피장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첫째, 유구에 외래계 부적-도장을 포함한 세 점의 의례용품이 있었고, 둘째, 유구 모서리에 유물이 집중배치된 곳에 추모용이나 제사용 음식으로 여길 수 없는 동물뼈가 놓여있었다. 그것은 지골 12점, 편평한 중심부가 마모된 염소 슬개골 5점, 대형동물의 발굽뼈 2점, 철갑상어과 어류의 척추 3점이다.

셋째, 라두트카 쿠르간 유구에 지역성이 관찰된다.(도 2)

⁵⁶⁾ Кор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М., 2004. pp. 49-63.

⁵⁷⁾ 위의 책. pp. 53-54.

⁵⁸⁾ 위의 책. p. 53.

이와 상반되는 나머지 유물이 적은 코이수그 고분군의 마이크로프계 분묘는 그 집단의 시조가 되는 고분일 가능성이 있는 쿠르간 5호(도 15) 내부에 위치한다.

여기서 내린 결론은 하나의 고분군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지역적 범위와 자료를 통해 도출된 것이므로 상대적인 하나의 가설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한다. 이 결론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여부는 앞으로의 연구가 보여줄 것이다.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을 통해 마이크로프-노보스바보드넨스크계 북쪽 영역 순동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초기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것은 발달한 고대 동양문명이 돈강하류역 재지 부족에게 미친 영향과 그 상호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지은 번역(동아대학교 강사)

■ 투고일 2011년 7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1년 8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30일 ■

⁵⁹⁾ 위의 책. p. 53

참고문헌

- Maksimenco V. Ye., 李知恩. 「初期鐵器時代 南部 러시아 돈江流域의 遊牧民族 埋葬遺跡에서 보이는 東아시아系 遺物」, 『東北亞 地域文化의 國際性 照明』, 2006.
- Maksimenco V. Ye., 이지은. 「돈강유역(남동유럽) 사르마트분묘 출토 동양유물」, 『석당논총』38, 2007.
- 이지은, 막시멘코 V. Ye. 「초기철기시대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 출토 국자형 동기 시론」, 『文物研究』15, 2009.
- 이지은,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출토 漢式 사르마트鏡」, 『文物研究』18, 2010
- Антонова Е.В. 『Очерки культуры древних земледельцев Передней и Средней Азии. (Опы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мировосприятия)』. М., 1984.
- Беспальй Е.И., Беспальй Г.Е. 「Курганный могильник Мухин」. 『Акс ай ские древности』. Ростов н/Д., 2002.
- Кияшко В.Я.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эпоху энеолита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 дисс. ... канд. ист. наук」. М., 1974.
- Кияшко В.Я. 「Между камнем и бронзой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V - III тьк. до н.э.)」, 『Донские древности』. Азов, 1994. Вып. 3.
-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Атабиев Б.Х., Аккизов А.Я. и др. 「Май копские погребения кургана 1 на р. Кудухурт в Балкарии」,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М., 2008.
-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Белинский А.Б., Калмыков А.А. 『Большой Ипатовский курган на Ставрополье ка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эпохе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степной границе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Кавказа』. М. 2007.
-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 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М., 2004.
- Кореневский С.Н.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май 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М., 2008.

- Максименко В.Е. «Отчет о работах 2-го отряд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 Азовском и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м районах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1968г.», 『Архив ИА РАН』. 1969, Р - 1, No3876.
- Максименко В.Е. «Отчет о раскопках в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м и Азовском районах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1969г.», 『Архив ИА РАН』. 1970. Р - 1, No3873.
- Максименко В.Е. «Некотор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й сугского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раскопки на Дону』. Ростов н/Д., 1973а.
- Максименко В.Е.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эпохе ранней бронз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СА』. 1973б. No 1.
- Магомедов Р.Г. «О комплексах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гестана», 『Горы и равнины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Кавказа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ие века』. Махачкала, 1991.
- Тощев Г.Н. 『Крым в эпоху бронзы』. Запорожье, 2007.
- Шишл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 - 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М. 2007. Вып. 165.
- Щепинский А.А., Черепанова Е.Н. 『Северное Прииславье в V - I тысячелетиях до нашей эры』. Симферополь, 1969.
- Rassamakin Jurij Ja. Die nordpontische Steppe in der Kupferzeit: Gräber aus der Mitte des 5. Jts. bis Ende des 4. Jst. v. Chr. Archäologie in Eurazien. Bd. 17. Mainz: Verlag Philipp von Zabern, 2004. T. I. II.

Abstract

The funeral groups of Koisug burial mound on the Lower Don

V.S.Yatsenko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funeral groups of Koisug burial mound. The analyses of Koisug cemetery complex as well as publications of previous investigators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this group of burials belongs to northern (Kumo-Manych) of province of Maikop-Novosvobodnaya community. Though the unified burial ritual, there two separate subgroups of burials inside it were observed. It was difficult to define the reasons of clear-cut distinc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for the lack of complexes and their local phenomenon.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efine chronology disparity of these burial places. Only one subgroup of Barrow No5 in the time frame from the end of 41 till the middle of 37 BC can be dated. One shouldn't insist on different sources of influence or migration as both subgroups can be compared only to psecupskij variant of Maikop-Novosvobodnaya community. The reasons of distinction are only observed in the degree of conformity with Maikop funeral ceremony. In all probability, it was an observation of funeral rites in Maikop tradition that emphasizes on the high social status of the buried.

Key Words : Koisug barrow, Maikov

Культурн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группы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ого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на Нижнем Дону.

-Исследование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энеолита – раннего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Северного Причерноморья.-

В. С. Яценко

- I. Введение*
- II. Описание группы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ого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 III. Предшествующ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группы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ого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 IV. Анализ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рассматриваемых погребений*
- V. Заключение*

I. Введение

Койсугский курганный могильник расположен на левом берегу реки Койсуг (левобережный приток Дона) (*рис. 1-2*). Полев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могильника проводилось в период с 1966 по 1971 годы и в 1974 году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ей Рост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В.Е. Максименко.¹⁾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разновременных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в особую группу выделяют погребения 18, 24, 32 кург. 5 и погр. 24 кургана «Радутка». Культурн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этой группы неоднозначно определяются в литератур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и комплексы

// Более подробно характеристику могильника, место его расположения, деление на курганные группы и краткую характеристику групп погребений см. Максименко В.Е. Некотор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йсугского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раскопки на Дону. – Ростов-н/Д., 1973. С. 43-47.

сравнивают с памятниками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²⁾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 погребениями кеми-обинской культуры³⁾ или определяют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южной» культурной струей, в истории кочевников степей Прикаспия-Причерноморья,⁴⁾ отличной от майкопской. Или же, как отмечают исследователи в работах последних двух десятилетий, погребения этого типа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от Молдовы до Прикубанья,⁵⁾ т.н. памятники

2/ Максименко В.Е.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эпохе ранней бронз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 СА. 1973. № 1. С. 249-254.;

Майкопская культура - археолог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раннего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Основной ареал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 охватывает равнины и предгорья Предкавказья, занимая Закубанье, Верхнее Прикубанье, район Кавказских минеральных вод, Терские наклонные равнины Северной Осетии,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ии, Ингушетии и Чечни.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е рамки охватывают период конец V- начало III тыс до н.э. В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выделяют четыре варианта: галюгаевско-серегинский, псекупский, долинский и 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ий (по Кор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и. М., 2004; Корневский С.Н.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отв. ред. Н.Я. Мерперт, С.Н. Корневский. М., 2008.)

3/ Максименко В.Е.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эпохе ранней бронз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 СА. 1973. № 1. С. 249-254.; Кияшко В.Я.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эпоху энеолита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1974. С. 148;

Понятие "кеми-об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введено А.А. Щепинским. Эт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энеолита-ранней бронзы, была выделена на основании совокупности серии признаков погребений - наличие надмоги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из камня, деревянных, каменных ящиков, грунтовых ям повторяющих форму ящика, роспись стенок, посыпка дна галькой, ракушкой и др., использование глиняного раствора, антропоморфные стелы, своеобразный инвентарь погребений. Изначально ареал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ультуры ограничивался Крымом, позже территорией степного Причерноморья. Датировка памятников у различных авторов от IV д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I тыс. до н.э. Современны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пишут об отсутствии четких критериев в выделении культуры Кеми-Обы, недостаточности четк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самой культуры, сомневаются вообще в правомерности существования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й культуры. (по Тощев Г.Н. Крым в эпоху бронзы. - Запорожье, 2007).

4/ Кияшко В.Я.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эпоху энеолита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1974. С. 114-116, 148.

5/ Кияшко В.Я. Между камнем и бронзой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V-III тыс. до

ки животиловско-волчанского типа.⁶⁾ В связи появлением новых материалов и работ по проблемам археологии раннего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Предкавказья⁷⁾ необходимо вновь поставить вопрос о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этой группы погребений.

Цель дан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рассмотреть культурну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данной группы погребений в свете но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археологии энеолита и раннего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Северного Причерноморья,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предшествующ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определить насколько правомерны выводы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относящих группу койсуг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к тому или и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А так же попытаться дополнить характеристику особенностей данной группы погребений на левобережье Нижнего Дона.

н.э.). // Донские древности. Вып. 3. Азов. 1994. С. 77, 80.

6/ Rassamakin Jurij Ja. Die nordpontische Steppe in der Kupferzeit: Gräber aus der Mitte des 5. Jts. bis Ende des 4. Jst. v. Chr. Archäologie in Eurazien. Bd. 17. Mainz: Verlag Philipp von Zabern, 2004. Т. I. S. 57, 59, 127, 129. Abb. 48, 49, 102, 103.

Памятники животиловско-волчанского типа предложил выделить Ю.Я. Рассамкин. Истоки этого явления невыяснены. Погребальные памятники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в понтийских степях, посел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ними неизвестны в степной зоне.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эти памятники были оставлены в результате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или два региона Приавобережье Днепра и Предкавказья. Именно в это время отмечаются усиленное проникновение к Дону и в низовья Волги, а так же в Крым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их элементов,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трипольских импортов каспервского типа в степной Крым, Приазовье, а возможно и до Предкавказья. В целом, финал энеолита в степном Причерноморье можно назвать периодом позднемайкопской и позднетриполь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выяснение характера которой остается дискуссионной темой. (по Rassamakin Jurij Ja. Die nordpontische Steppe in der Kupferzeit: Gräber aus der Mitte des 5. Jts. bis Ende des 4. Jst. v. Chr. Archäologie in Eurazien. Bd. 17. Mainz: Verlag Philipp von Zabern, 2004.)

7/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и. – М., 2004; Кореневский С.Н.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отв. ред. Н.Я. Мерперт, С.Н. Кореневский. – М., 2008; Шишл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Во все времена Северной Причерноморье было контактной зоной для многих мировых культур, эта территория находится на границе между Западом и Востоком. Корейск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урганами и инвентарью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а этого региона по другим статьям⁸⁾.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более раннему периоду в Северном Причерноморье, является попыткой дополн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культур универсальной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II. Описание группы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ого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Погребение 18 кург. 5⁹⁾ (Впускное) (*рис. 3, 4: 1–3*). Яма подпрямоугольная со скругленными углами была ориентирована длинной стороной по линии ВСВ-ЗЮЗ. Яма имела по всему периметру уступы-заплекники шириной от 0,3 до 0,7 м. Размер ямы 2,9X2,0 м. Размер меньшей ямы 1,75X0,9 м. Глубина от уступов до дна ямы 0,8 м в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и 0,5 м в западной. На заплечиках сохранились остатки деревянных плах и камышового настила от перекрытия.

Погребение парное (взрослый и подросток). Костяки лежали скорченно на левом боку, головой на ВСВ (*рис. 3*). Кости рук согнуты в

⁸⁾ Максименко В.Е., Ли Жи Ён. Предметы из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погребальных комплексах кочевников эпохи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а на Дону Юга России // International symposium of Seokdang academy in 2006, 2006.

Maksimenko V. Ye., Lee Ji Eun, 'Asian imports from the Sarmatian graves in the Don basin (Russia)', 『Journal of Seokdang academy』vol.38, 2007.

Lee Ji Eun, Maksimenko V. Ye. 'Bronze scoops from barrows of early iron age in the western part of Eurasian steppes', 『Journal of cultural relics』 vol.15, 2009.

Lee Ji Eun, 'Bronze Sarmates' mirrors with the Han elements of Han dynasty from the southern european part of Russia', 『Journal of cultural relics』, vol.18, 2010.

⁹⁾ Максименко В.Е. Отчет о работах 2-го отряд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 Азовском и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м районах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1968 г. // Архив ИА РАН. 1969, Р-1, № 3876.

локтях, кисти у головы. Черепа костяков деформированы. Стопы костяка подростка лежали на коленных суставах взрослого.

На дне ямы, под костяками, прослежена «земляная подсыпка», состоящая из смеси гумуса, охры, углей и мела. Толщина слоя 15,0–20,0 см. Интенсивная посыпка охрой отмечена под костями стоп и кистями рук.

Инвентарь: У восточной стенки могильной ямы, напротив черепа взрослого человека, стоял глиняный сосуд (*рис. 4: 1; 5*) серого цвета, с невысоким вертикальным горлом, венчиком, отогнутым наружу, переход в тулово ярко выражен, дно сосуда округлое (устойчив). В верхней части тулова имеются два налета в виде конусообразных «ушек» с вертикальными сквозными отверстиями. По тулову нанесен пролощенный сетчатый орнамент. В изломе светло-коричневого цвета, с примесью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еска и дресвы мелкого и среднего размера, немного мелкой истолченной ракушки(?), а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уют небольшие белые вкрапления. Высота сосуда 10,6 см, диаметр по венчику – 9,2 см, по горлу – 8,2 см, наибольший – 13,8 см.

Второй сосуд (*рис. 4: 2; 6*) находился под костями предплечья правой руки и коленного сустава правой ноги подростка. Сосуд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глубокую миску, переход в тулово ярко выражен, с округлым дном (устойчив). Вся поверхность имеет зеркальное лощение. Цвет поверхности неоднородный (от коричневого до бурого). Тесто слонится на изломе, темно-коричневого цвета. В примеси обильные белые включения извести или мела(?), присутствуют следы от выгоревшей волокнистой органики. Высота сосуда 8,4 см, диаметр по венчику – 14,4 см, по переходу от горла к венчику – 13,5 см, наибольший – 15,6 см.

У обоих костяков в области таза найдено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ерламутрового бисера (*рис. 4: 3; 7*). Диаметр бисера – 0,35–0,2 см, отверстия – 0,1 см, толщина 0,05–0,07 см.

Между черепами двух погребенных найден кремневый отщеп без

следов ретуши.

Погребение 24 кург. 5¹⁰⁾ (Впускное) (*рис. 9*). Прямоугольная яма со скругленными углами. Она имела по периметру уступы-заплечики. Яма ориентирована длинной стороной по линии ВСВ–ЗЮЗ. Размер ямы 2,35X1,65 м. Размер меньшей ямы 1,32X0,85 м. Ширина уступов от 0,3X0,5 м. Глубина от уступов до дна ямы 0,5–0,4 м. Перекрытие меньшей ямы состояло из бревен диаметром 10,0–15,0 см.

Костяк лежал скорченно на левом боку, головой на ВСВ (*рис. 9: 1*). Кости рук согнуты в локтях, кисти у черепа.

Под костями прослежены остатки подстилки. Между костяком и дном могильной ямы прослойка из гумуса с вкраплениями мела, углей и охры.

Инвентарь: За спиной скелета стоял сосуд (*рис. 9: 2; 10*) с высоким раструбным горлом, переход в тулово ярко выражен, с округлым слегка примятым дном (устойчив). Поверхность имеет зеркальное лощение. Цвет светло-коричневый. Тесто в изломе темно-серое, в примеси редки белые включения извести или мела(?), присутству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ледов от выгоревшей волокнистой органики. Высота сосуда 12,4 см, диаметр по венчику – 7,5 см, по переходу от горла к венчику – 5,6 см, наибольший – 10,4 см.

Перед костями предплечья лежала медная или бронзовая ковкая пластинка (*рис. 9: 3*) размером 3,2X0,9 см в виде миниатюрного «ножика»(?) с черенком.

Погребение 32 кург. 5¹¹⁾ (Впускное) (*рис. 4: 3, 4*). Подпрямоугольная яма со скругленными углами была ориентирована длинной стороной по линии В–З. Яма имела по всему периметру уступы-заплечики шириной 0,15–0,2 м. Контур большей ямы прослеживался плохо. Размер 1,0X0,9 м. Размер меньшей ямы 0,5X0,7 м. Глубина от уступов до дна ямы 0,5 м. На заплечиках сохранились остатки перекрытия из дере

¹⁰⁾ Там же.

¹¹⁾ Там же.

вянных бревен.

Костяк ребенка лежал скорченно на левом боку, головой на В. Кости рук согнуты в локтях, кисти у пояса, локти вывернуты от туловища.

Под костяком на дне ямы обнаружена тонкая подстилка, включающая в себя немного охры, мела и угольки.

Инвентарь: В области поясицы сохранились остатки пояса из огром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бисера (*рис. 4: 3; 8*). Диаметр бисера – 0,35–0,2 см, отверстие – 0,1 см, толщина 0,05–0,07 см.

Погребение 24 кург. 1 группы «Радупса»¹²⁾ (Впускное) (*рис. 11*). Яма подпрямоугольной формы со скругленными углами была ориентирована длинной стороной по линии ССЗ–ЮЮВ. Яма имела по периметру уступы-запечки шириной от 0,15–0,4 м. Размеры большей ямы 1,8X1,4 м, меньшей – 1,38X1,0 м. Глубина от уступов до дна ямы 0,6 м. На уступах сохранились остатки обгоревших плашек и камышового перекрытия. В заполнении ямы встречались угольки, и был обнаружен фрагмент керамики серого цвета с большой примесью ракушки в тесте.

Погребение парное (взрослый и подросток). Костяки лежали скорченно, обращены друг к другу (*рис. 11: 1*). Взрослый на левом боку, головой на Ю. Кости рук согнуты в локтях, кисти у головы. Подросток на правом боку, головой на ЮВ. Череп лежал на костях рук взрослого. Кости рук подростка вытянуты к тазу взрослого, кисти в районе собственных колен. В области таза кости обоих скелетов обуглены.

На дне могильной ямы фиксировались остатки обгоревшей подстилки, густо посыпанной охрой.

Инвентарь: Между восточной стеной и костяками в районе черепа взрослого человека лежала проколка-амулет (*рис. 11: 5*), сделанная из отполированного клыка животного (кабана?) или из его части. По центру имелось сквозное отверстие. Длина амулета 8,5 см, толщина тупого конца 0,5X0,6 см, диаметр отверстия 0,25–0,15 см.

В северо-северо-западном углу могильной ямы, около коленного

¹²⁾ Максименко В.Е. Отчет о раскопках в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м и Азовском районах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1969 г. // Архив ИА РАН. 1970. Р-1, № 3873.

сустава правой ноги взрослого погребенного был обнаружен комплекс вещей, сложенных компактно на кучке крупного речного песка:

1) лепной круглодонный сосуд (*рис. 11: 4; 14*), с отогнутым наружу венчиком, переход в тулово слабовыражен, плавный.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наблюдаются следы расчесов зубчатым штампом или следы от заглаживания травой. Цвет поверхности неоднороден, от светло-охристого до черного. В изломе тесто черного цвета, с примесью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дресвы, наблюдается немного следов от выгоревшей органики и не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ракушек, встречаются белые вкрапления. Высота сосуда 10,1 см, диаметр по венчику – 7,9 см, по переходу от горла к венчику – 6,5 см, наибольший – 11,0 см;

2) миниатюрный лепной круглодонный сосуд (*рис. 11: 2; 12*). Венчик прямой. Внутри сосуда лежал кусок охры. На изломе тесто сосуда темное с примесью ракушки и мелкого песка. Поверхность серо-черного цвета, залощена. Высота сосуда 3,8 см, диаметр по венчику – 3,4 см, наибольший – 4,1 см;

3) лепной сосуд в форме кружки с плоским дном и большой петлеобразной ручкой (*рис. 11: 3; 13*), овальной в сечении, немного выступающей над устьем. Поверхность светло-коричневого цвета, залощена. Тесто, в изломе черное, с примесью крупного и мелкого песка и дресвы, встречаются следы от выгоревшей волокнистой органики. Высота сосуда 5,0 см, диаметр по венчику – 5,7 см, диаметр дна – 3,0 см; толщина ручки 1,0X1,4 см;

4) крупная каменная(?) бусина (*рис. 11: 8*), темно-коричневого, почти черного цвета. Форма полусферическая. Ближе к нижнему плоскому основанию параллельно ему сквозное отверстие. Нижняя, уплощенная сторона украшена крестовидным врезным орнаментом, состоящим из параллельных линий, по четыре штуки, пересекающихся в центре.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пуклая обратная сторона разделена линиями на четыре сектора,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заштрихован параллельными врезными линиями, штрихи каждого сектора перпендикулярны штрихам следующего сектора. Диаметр бусины – 2,2 см;

5) три цилиндрические бусины черного цвета из гешира и одна

белая из зуба(?), (рис. 11: 7) высота 0,4 см, внешний диаметр бусины 0,6 см, диаметр отверстия 0,2 см;

б) амулет-подвеска (рис. 11: 6) треугольной формы из полированной кости. Длина амулета-подвески – 3,3 см, ширина основания 0,78 см, толщина 0,3 см, диаметр отверстия 0,15 см;

7) плоская галька, размером 7,0X2,5X0,9 см;

8) кости животных: 12 астрагалов, 5 бараньих коленных чашечек (у некоторых плоские основания затерты), две бабки крупных животных, три позвонка рыб из породы осетровых.

III. Предшествующие исследование группы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ого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Все четыре комплекса имеют общие признаки погребальной обрядности, такие как форма погребального сооружения – яма с уступами-заплечиками, поза погребенного – скорченно на левом боку, руки согнуты в локтях, кисти у лица погребенного, в инвентаре – круглодонные сосуды, имеющие лощеную поверхность. Эта общность обряда позволила предшествующим исследователям рассматривать эти погребения в рамках единой группы, но согласия в определении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этой группы нет.

Впервые материалы этих погребений рассмотрены и опубликованы в 1973 году.¹³⁾ В заметке В. Е. Максименко относит описанные погребения к концу III или началу II тыс. до н.э., а также отмечает, что комплексы находят сходство с памятниками майкопской и кеми-обинской культур. В.Е. Максименко оговаривается, что некотор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усматривают в ней элементы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В 1974 году в диссертации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освященной проблемам изучения памятников эн

¹³⁾ Максименко В.Е.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эпохе ранней бронз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 СА. 1973. № 1. С. 249-254.

еолита и раннего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Нижнем Дону, В.Я. Кияшко выдел VI группу энеолитиче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и отметил, что погребения из Койсуг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являются наиболее выразительными для этой группы.¹⁴⁾ Анализ погребений этой группы приводит автора диссертации к выводу, что комплексы этой группы оставлены пришлым кочевым населением с развитым скотоводством.¹⁵⁾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сильную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культурную струю в истории кочевников степей Прикаспия – Причерноморья и продолжают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южной» линии в истории племен Подонья. В.Я. Кияшко отме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вязи погребений VI типа и V группы,¹⁶⁾ но характер этой связи ему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ясным. При этом только частично соглашается с выводами В.Е. Максименко о сравнении койсуг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с памятниками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так как черты общности в обряде и инвентаре сочетаются со многими отличиями. Керамика, по мнению В.Я. Кияшко, при самом общем сравнении напоминает майкопскую, но в деталях ее отличия существенны.¹⁷⁾ В.Я. Кияшко, как и В.Е. Максименко,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на возможное сходство сосудов из койсуг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с керамикой кеми-обинской культуры.¹⁸⁾

Здесь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и монографию В.Я. Кияшко, посвященную энеолитическим памятникам Нижнего Дона. В ее основе лежит диссертацио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автора, дополненное нов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раскопок на период 1990-х годов. В этой работе В.Я. Кияшко объединяет ранние курганные комплексы в четыре группы.¹⁹⁾ К IV группе

¹⁴⁾ Кияшко В.Я.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эпоху энеолита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1974. С. 114-116.

¹⁵⁾ Там же. С. 148.

¹⁶⁾ V группу погребений В.Я. Кияшко соотносит с материалами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керамика III группы) и майкоп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Кияшко, 1974. С. 104–114; 146–147).

¹⁷⁾ Кияшко В.Я.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эпоху энеолита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1974. С. 148.

¹⁸⁾ Там же.

¹⁹⁾ Кияшко В.Я. Между камнем и бронзой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V-III тыс. до н.э.). // Донские древности. Вып. 3. Азов. 1994. С. 77.

он относит материалы рассматриваемых койсуг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и отмечает, что погребения этого типа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почти без изменений от Молдовы до Прикубанья, проникая в Волго-Донское междуречье, 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имеют отражения в культурных слоях поселений.²⁰⁾ По его мнению, для Дона несомненен их скоротечный пришлый характер. Исследователь подчеркивает обоснованность движения этих погребений в направлении с запада на юго-восток.

IV. Анализ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рассматриваемых погребений

Соотнесение этих погребений с памятниками кеми-об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является проблематичным. Так как, ставя вопрос о возможной схожести данных погребений с памятниками кеми-об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сылались на монографию А.А. Щепинского и Е.Н. Черепановой.²¹⁾ В ней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две группы погребений, не типичных для культур Северного Крыма, в одной из них отмечено наличие керамики, сходной с трипольской или майкопской. А такж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район этих захоронений входит в обширную зону юга причерноморских степей, на которой обитали племена кеми-об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материалы которо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имеют много общего с памятниками и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²²⁾ Но, несмотря на возможное сходство керамики с материалами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группа погребений Северного Присивашья имеет мало схожих черт с койсугскими погребениями.²³⁾ К ним можно отнести восточную или северо-восточную ориентировку, подпрямоугольность могильных ям, согнутость рук в локтях при расположении кистей у лица и наличие круглодонной керамики. Но

²⁰⁾ Там же. С. 80.

²¹⁾ Щепинский А.А., Черепанова Е.Н. Северное Присивашье в V-I тысячелетиях до нашей эры. – Симферополь, 1969. 328 с.

²²⁾ Там же. С. 57-61.

²³⁾ Там же. С. 58-59. Рис. 17-18.

здесь необходимо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среди Присивашских захоронений нет ни одного погребения, которое сочетало бы в себе все эти признаки. У групп погребений, рассмотренных А.А. Щепинским и Е.Н. Черепановой, наблюдается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черт, не характерных для группы койсугских захоронений: наличие округлых могильных ям, отсутствие уступов-заплечиков, наличие западной и северной ориентировок,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положение рук, отличное от положения «согнуто в локте кистями у лица», скудность погребального инвентаря, в керамике – низкий венчик, присутствие орнамента в виде ложных жемчужин или оттисков шнура и т.д.

В соврем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высказывается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ное сомнение по поводу обоснованности выделения кеми-об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отмечается размытость признаков культуры, беспочвенность расширения ареала 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 еще большей нечеткости критериев отнесения комплексов к этой культуре.²⁴⁾ Г.Н. Тощев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огребения Крыма, имеющие признаки памятников кеми-об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их «классическом» виде, в рамках проблемы «ящичных» захоронений²⁵⁾ и соотносит эту немногочисленную группу памятников с ямным и племенами, которые, проникнув в предгорья Крыма, выбрали определенные элементы местных энеолитических племен и контактировали с культурами Кавказа.²⁶⁾ Сходство же группы «ящичных» погребений²⁷⁾ с койсугскими захоронениями заключается в преобладании ориентации погребенных головой в восточный сектор, наличии позы скорчено на левом боку, с согнутыми руками в локтях кистями у лицевой части черепа. Однако поза и ориентация погребенных не стабильны. В существенном количестве здесь присутствуют комплексы с положением умерших на спине и на боку, с иным положением рук, а также ориентировкой головой на СЗ, ЮВ, ЮЗ, З. Инвентарь «ящичных» захоронений представлен, как правило, плоскодонной керамикой и другим

²⁴⁾ Тощев Г.Н. Крым в эпоху бронзы. – Запорожье, 2007. С. 59-93.

²⁵⁾ Там же.

²⁶⁾ Там же. С. 89.

²⁷⁾ Там же. С. 65-89. Рис. 25-37, 40-42.

и категориями вещей (металлическими ножами, шильями, браслетами, топором, теслом, долотом, двурогой вилкой; костяной булавкой; каменными топорами; кремневыми пластинами), не характерными для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К отличительным чертам можно добави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рнаментированных плит в погребальной конструкции и возможну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группы населения, оставившей «ящичные» захорон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группы кочевого населения, двигавшегося «с запада (украинские степи) на юго-восток», не совсем ясно, какие конкретно погребения, помимо собственно койсугских и других нижнедонских, выделенных в VI группу п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1974 г., имеет в виду В.Я. Кияшко, которые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почти без изменений от Молдовы до Прикубанья.²⁸⁾ Возможно, В.Я. Кияшко имел в виду погребения, которые впоследствии были объединены Ю.Я. Рассамакиным²⁹⁾ в вариант С III группы. По наиболее характерным погребениям на р. Самаре и р. Молочной он предлагает выделять их в памятники животиловско-волчанского типа. Отмечает, что эта группа содержит в себ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трипольские, а с другой –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ие элементы. Группа погребений III варианта С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рассматриваемые койсугские захоронения, но, несмотря на общность в элементах обряда (форма могильной ямы, поза, ориентировка),³⁰⁾ инвентарь погребений (наличие уникальных украшений, округлодонность сосуда с «ушками», отличие морфологии и орнаментации сосудов)³¹⁾ выглядит достаточно обособленно. Явное отличие в инвентаре позволяет усомниться в правомерности отнесения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ого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к памятникам животиловско-волчанского типа.

Материалы рассматриваемых койсугских захоронений имеют наи

²⁸⁾ Кияшко В.Я. Между камнем и бронзой (Нижнее Подонье в V-III тыс. до н.э.). // Донские древности. Вып. 3. – Азов, 1994. С. 80.

²⁹⁾ Rassamakin Jurij Ja. Die nordpontische Steppe in der Kupferzeit: Gräber aus der Mitte des 5. Jts. bis Ende des 4. Jst. v. Chr. T. I. II. Archäologie in Eurazien. Bd. 17. Mainz: Verlag Philipp von Zabern, 2004.

³⁰⁾ Там же. Т. I. S. 57, 59. Abb. 48, 49.

³¹⁾ Там же. Т. I. S. 127, 129. Abb. 102, 103.

большее сходство с памятниками основного ареал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 Так, для погребений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характерны могильные ямы подпрямоугольной формы, простые ямы без обустройства деревом или камнем и сложные. Среди сложных выделяются варианты, в которых присутствуют могилы с деревянной рамой, могилы с рамой, срубом, могилы с каменными обкладками.³²⁾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яма с уступами-заплечиками – это воплощение той же идеи, что и обкладка по контуру ямы или стен погребальной ямы камнями, деревом в условиях дефицита последнего, что, собственно, и характерно для левобережья Нижнего Дона. Поза погребенных скорченно на левом боку, с положением рук, согнутых в локтях кисти у лицевой части черепа, или рук вытянутых к коленям, также характерна для погребений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³³⁾ Расположение погребального инвентаря в могиле компактно по углам – еще одна черта обряда, говорящая о близости с памятниками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³⁴⁾

В инвентаре погребенных Койсуг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также прослеживаются черты схожести с материалами памятников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 В керамике³⁵⁾: наличие сосудов с лощеной поверхностью, доходящей до зеркального блеска, в тесте керамики наблюдаются искусственные минеральные (дресва, песок) и органические добавки, неорнаментированные сосуды или орнаментация в виде пролощенной сетки. Морфология сосудов так же находит аналогии в майкопской керамике.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осуды из койсуг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по морфологии укладываются в схему, разработанную С.Н. Кореневским,³⁶⁾ отраженную в каталоге форм майкопской керамики. Сосуд из погр. 18 кург. 5 сопоставим с посудой отдела 4-2 сосуды с двумя вертика

³²⁾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и. – М., 2004. С. 17.

³³⁾ Там же. С. 19.

³⁴⁾ Там же.

³⁵⁾ Там же. С. 22.

³⁶⁾ Там же. С. 23-35.

льными ручками, группа ДВР-1. Наиболее тождественные примеры формы сосуда (с вертикальным горлом, край венчика которого отогнут наружу, тулово шаровидно-уплощенное, дно округлое наличие ушек-ручек с вертикальным отверстием, расположение ручек на тулове ниже горла) имеются в комплексах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Дагестана.³⁷⁾ Миска из погр. 18 кург. 5,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выполнена по стандартам признаков керамики отдела 1-3 сосуда без ручек с шаровидно-уплощенным туловом, круглым дном, группа ШУ-2. Но она не имеет точных аналогий среди керамики, относимой к этой группе. Сосуд из погр. 24 кург. 5 относится к отделу 1-2 Сосуды без ручек с круглым или уплощенным дном, шаровидные, круговые, группа ШС-4. Сосуд из погр. 24 кург. «Радутка» можно соотнести с керамикой отдела 2-1 сосуда без ручек с округлым туловом, округлым дном, лепные, группа ЛО-4. Это соотнесение достаточно условно, так как целостно по форме он отдаленно напоминает майкопскую керамику группы ЛО-4, скорее по совокупности признаков: S-образность профиля венчика, горло средней величины, округлость тулова, округлость дна. Еще одна деталь, сближающая керамику группы ЛО-4 с сосудом из погр. 24 кург. «Радутка» – насыщенность теста сосудов минеральными примесями. Миниатюрные сосуды отмечены в отделе 2-1 сосуда без ручек с округлым туловом, округлым или уплощенным дном, группа ЛО-1. Однако сосуды группы ЛО-1 имеют S-видный профиль венчика, а венчик миниатюрного сосуда из кургана «Радутка» слабовыражен и скорее, имеет прямой или наклоненный вовнутрь вид, характерный для группы керамики ЛО-2.

Среди другого инвентаря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сжогого с материалами майкопских древностей, можно отметить: цилиндрические бусы³⁸⁾, костяную проколку-амулет со сквозным отверстием

³⁷⁾ Кенотаф Большого Миатлинского кургана; оградка Великентского катакомб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1983 - Магомедов Р.Г. О комплексах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гестана. // Горы и равнины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Кавказа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ие века. – Махачкала, 1991. С. 17, 22. Рис. 3,6. Р.Г.Магомедовым так же проводятся параллели серии сосудов с ушками-ручками Дагестана, в том числе и с койсугским сосудом.

в середине корпуса (именно отверстие в середине корпуса сближает ее с подобными, но металлическими вещами погребений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³⁹⁾ а также наличие переднеазиатского импорта, которым,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является крупная каменная бусина или печать-амулет. Подобная по морфологии и орнаментации печать-амулет найдена в материалах убейдской культуры.⁴⁰⁾

Отличительными элементами в погребальном обряде койсуг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от, собственно, майкопских, являются наличие восточной ориентировки, преобладание положения умерших на левом боку, поясные наборы из бисера и наличие примеси в не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толченой ракушки в тесте сосудов погребений 18 кург. 5 и 24 кургана «Радутка». Эти элементы погребальной обрядности говорят о присутствии немайкопского компонента.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черты, не характерные для памятников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 принадлежат влиянию местных энеолитических степных культур. Возможно, этот компонент связан как раз с памятниками животиловско-волчанского типа или «ящичными» захоронениями Крыма, именно эти элементы обряда (ориентации погребенных головой в восточный сектор и поза скорченно на левом боку) сближают их с койсугскими захоронениями.

Такое обоюдное смешение черт погребальной обрядности майкопских и степных племен характерно для памятников северной, кумо-мангычской периферии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⁴¹⁾ При сравнении койсуг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с захоронениями северной периферии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⁴²⁾ наблюдается наличие элем

³⁸⁾ Кор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и. – М., 2004. С. 47.

³⁹⁾ Там же. С. 47, 216. Рис. 90 (28-30).

⁴⁰⁾ Антонова Е.В. Очерки культуры древних земледельцев Передней и Средней Азии. (Опы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мировосприятия) - М., 1984. С. 181. Рис. 23 (10).

⁴¹⁾ Корневский С.Н.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отв. ред. Н.Я. Мерперт, С.Н. Корневский. – М., 2008. С. 76.

⁴²⁾ Кор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ентов, не характерных для основного ареал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такие как: восточная ориентировка, сочетающаяся с позой скорченно на боку;⁴³⁾ поза погребенного скорченно на левом боку, руки согнуты в локтях, кисти у лица;⁴⁴⁾ восточная ориентировка, с сочетанием позы погребенного скорченно на левом боку, руки согнуты в локтях, кисти у лица;⁴⁵⁾ а также поясные наборы из бус и бисера.⁴⁶⁾

Среди керамики также наблюдаются общие черты – круглодонность сосудов, высокое раструбное горло, ярко выраженный переход от венчика в тулово, сетчатый орнамент.⁴⁷⁾ Сосуд из погр. 18 кург. 5 Кой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 М., 2004. С. 93-96.

⁴³⁾ погр. 13 кург. 16 и погр. 11 кург. 17 Восточный Маныч, Левый Берег III 1966, погр. 12 кург. 2 Шарахалсун 6, погр. 15 кург. 1 Зунда–Толга - Шишл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С. 42–43, 46–47, 52–53. Рис. 15, 17, 19; погр. 185 кург. 2 Ипатово 3 - Корневский С. Н., Белинский А.Б., Калмыков А.А. Большой Ипатовский курган на Ставрополье ка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эпохе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степной границе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Кавказа.- Ставрополь, - М., 2007. С. 69–70, 199. рис. 59.

⁴⁴⁾ погр. 2 кург. 1 Чограйский VI; погр. 7 кург. 5 Шарахалсун 6; погр. 20 кург. 4 Эвдык; погр. 16 кург. 1 Зунда–Толга - Шишл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С. 45–48, 52–53. Рис. 17–19); погр. 183 кург. 2 Ипатово 3 - Корневский С.Н., Белинский А.Б., Калмыков А.А. Большой Ипатовский курган на Ставрополье ка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эпохе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степной границе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Кавказа.- Ставрополь, - М., 2007. С. 65–66, 196. Рис. 56.

⁴⁵⁾ погр. 16 кург. 5 Мухин II - Беспалый Е.И., Беспалый Г.Е. Курганный могильник Мухин. // Аксайские древности. – Ростов-н/Д., 2002. С. 44, 93. Рис. 32; погр. 14 кург. 1 Зунда–Толга - Шишл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С. 52–53. Рис. 19.

⁴⁶⁾ погр. 13 кург. 14 Манджикины I, погр.16, 19, 22 кург. 4 Эвдык - Шишл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С. 44, 47,49, 54–56. Рис. 16, 18, 21).

⁴⁷⁾ Могильники Восточный Маныч, Левый Берег III 1966, Шарахалсун 6 - Шишл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С. 43, 46. Рис. 15, 17; Ипатово 3 - Корневский С.Н., Белинский А.Б., Калмыков А.А. Большой Ипатовский курган на Ставрополье ка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суг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имеет наибольшее сходство по форме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ушек-ручек) с сосудами из погр. 17 кург. 2 могильника Шарахал сун 6⁴⁸) и погр. 195 кург. 2 могильника Ипатово 3⁴⁹). Относительно наличия примеси толченой ракушки в тесте сосудов койсуг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18 кургана 5 и 24 кургана «Радутка» следует пояснить, что этот компонент не типичен для майкопской керамики.⁵⁰) Примесь его в тесте сосудов могла появиться непреднамеренно вследстви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качестве компонента примеси дробленой породы камня известняка-ракушечника. Косвенно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малым или даже единствен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наблюдаемых фрагментов ракушек в сосудах койсуг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Но, даже если примесь ракушки предполагалась древними мастерами, то она, скорее всего, говорит о синтезе технолог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керамики майкопской и степной. Возможно, здесь наблюдается некое подражание майкопской керамике с применением в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случаях старых традиционных методов степной культуры, тем более что сосуды с явной примесью толченых раковин происходят из парных погребений. Конечно, более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ное объяснение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при анализе с помощью микроисследований состава керамики из койсугских курганов и сравнении полученных данных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технологии изготовления майкопской керамики, как периферии, так и основного ареал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амятников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

Еще одна аналогия, дополняющая сходство инвентаря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их курганов и захоронений северной периферии майк

по эпохе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степной границе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Кавказа.- Ставрополь, - М., 2007. С. 207. Рис. 67.

^{48/} Шишл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С. 46. Рис. 17 (11);

^{49/}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Белинский А.Б., Калмыков А.А. Большой Ипатовский курган на Ставрополье ка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эпохе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степной границе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Кавказа.- Ставрополь, - М., 2007. С. 207. Рис. 67 (3).

^{50/}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и. – М., 2004. С. 23.

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 – это изогнутая костяная пр
околка-амулет, имеющая сквозное отверстие в средней части из
погр. 11 кург. 5 могильника Эвдык.⁵¹⁾

V. Заключе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ссматриваемые погребения Койсугского курган
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можно с полной уверенностью отнести к погребения
м северной, кумо-манычской периферии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
й общности.

Несмотря на общность погребального обряда рассматриваемых ма
йкоп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Койсуг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между погребениями
кургана 5 и кургана «Радутка» наблюдается ряд принципиальных отли
чий. Так, для погребений кург. 5 характерны: ориентировка погребенн
ых головой на восток-северо-восток или восток; наличие гумусной про
слойки под костяками умерших, имеющей в своем составе охру, мел
и угольки; в инвентаре – наличие у погребенных поясов из бисера;
расположение сопроводительного инвентаря разрозненно друг от друг
а и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гребенного в области верхней части скелета, в рай
оне черепа, за спиной или перед грудной клеткой. Для погребения из
кургана «Радутка» характерны: южная или юго-восточная ориентировк
а погребе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е огня в обряде, отразившегося на костях
погребенных; расположение сопроводительного инвентаря компактно
в углу погребальной ямы в ногах погребенных. Еще одно различие наб
людается в положении костяков в парных комплексах: в погребении
кургана 5 положение подростка аналогично положению взрослого чел
овека, а в погребении кургана «Радутка» положение костяка подростка
существенно отличается (положение на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м боку, руки

51/ Шишлина Н.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Прикаспий в эпоху бронзы (V-III тысяч
елетие до н.э.). Труды ГИМ. Вып. 165. – М., 2007. С. 54-55. Рис. 20
(6).

вытянуты в район собственных колен) от положения костяка взрослого погребенного.

В совокупности эти различия не позволяют считать их случайным и или незначительными отклонениями от нормы погребального обряда в рамках одной группы, а, наоборот, дают право поставить вопрос есл и не о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группах погребений, то о разделении группы на две подгруппы. Что скрывается за этими различиями в погребально м обряде, пока ответить сложно, из-за незначительной выборки комплексов и локальности явления. Но все же необходимо попытаться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ые причины этих различий.

К сожалению, погребения Койсуг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не имеют дат ^{14}C , поэтому установить достоверно отсутствие отличий в хронологии захоронений или их синхронность невозможно. Возможно, в качестве хронологического индикатора для подгруппы захоронений кургана 5 может выступить сосуд с пролощенным орнаментом в виде сетки. Аналогии этому сосуду имеются в погребениях: 17 кург. 2 могильника Ша рахалсун 6 (BP 5190±70 Cal. 4066–3942 BC);⁵²⁾ 11 кург. 17 могильника Восточный Маньч, Левый Берег III 1966 (BP 5095±45 Cal. 3877–3804 BC);⁵³⁾ 1 кург. 1 могильника Кудахурт (BP 4930±60 Cal. 3773–3650 BC)⁵⁴⁾. Объединяет эти сосуды общность признаков морфологии – вертикальное горло, край венчика отогнут наружу– и наличие сетчатого орнамента. Среди датированных погребений радиоуглеродным анализом есть еще один комплекс – погр. 195 кург. 2 Ипатово 3 (BP 4610±140 Cal. 3516–3256 BC; BP 4410±170 Cal. 3350–2881 BC),⁵⁵⁾ в котором был

⁵²⁾ Там же. С. 46, 381. Рис. 17 (11). Табл. 2.

⁵³⁾ Там же. С. 43, 381. Рис. 15 (13). Табл. 2.

⁵⁴⁾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Атабиев Б.Х., Аккизов А.Я., Хашироков А.Х. Майкопские погребения кургана 1 на р. Кудахурт в Балкарии.//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корр.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отв. ред. Н.Я. Мерперт, С.Н. Кореневский. – М., 2008. С. 132, 147. Табл. 1. Рис. 8(1).

⁵⁵⁾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Белинский А.Б., Калмыков А.А. Большой Ипатовский курган на Ставрополье ка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эпохе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на степной границе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Кавказа.- Ставрополь, - М., 2007. С. 207. Рис. 67 (3); Кореневский С.Н.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майкопской культуры.// Археология Кавказа и Ближнего Во

обнаружен сосуд с аналогичным орнаментом, но отличным по морфологии оформлением горла и венчика. Расхождение дат и мал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ллагена в образцах ипатовского погребения не позволяет полностью доверять данной датировке, тем более что сосуд из этого захоронения отличен по форме от койсугского и не может быть принят в качестве аналогии для датирования.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огребения подгруппы кургана 5 Койсугского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можно датировать в рамках конца 41– середины 37 вв. до н.э. Хронологических индикаторов в погребении из кургана «Радутка» нет.

Сравнение признаков подгрупп майкоп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с признаками локальных вариантов основного ареал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 выделенных С.Н. Кореневским,⁵⁶⁾ не позволяет утверждать о различных источниках влияний или миграций. Особенности погребального обряда, положение погребенного скорченно на боку; наличие в инвентаре: круглодонных сосудов с шаровидным туловом; сосуда с ушками-ручками, пролощенного орнамента на керамике, переднеазиатских импортов, а также особенности, рознящие подгруппы между собой, такие как южная ориентировка погребе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е огня в обряде или угольков в могиле; расположение сопроводительного инвентаря компактно в углу погребальной ямы, позволяют сопоставить обе подгруппы с псекупским вариантом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⁵⁷⁾ Ряд вышеобозначенных признаков характерен и для галюгаевско-серегинского варианта. С.Н. Кореневский⁵⁸⁾ отмечает схожесть в керамике этих двух вариантов, но преобладание круглодонных сосудов с шаровидным туловом и наличие пролощенного орнамента и, возможно, импортных вещей явля

стока: сб. к 80-летию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АН, профессора Р.М. Мунчаева /отв. ред. Н.Я. Мерперт, С.Н. Кореневский. – М., 2008. С. 86. Табл. 2а.;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Сергею Николаевичу Кореневскому за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датировкам п. 195 к. 2 Ипатово-3.

⁵⁶⁾ Кореневский С.Н. Древнейшие земледельцы и скотоводы Предкавказья: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ая общность, проблемы внутренней типологии. – М., 2004. С. 49-63.

⁵⁷⁾ Там же. С. 53-54.

⁵⁸⁾ Там же. С. 53.

ются диагностирующими признаками для псекупского варианта.

В различиях подгрупп погребений Койсуг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скорее всего наблюдается разница в степени соответствия погребальному обряду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 Так, в погребение из кургана «Радутка» в наи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сохраняются черты майкопского обряда, а в кург. 5,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наблюдается сильное влияние компонента иной культуры. Возможно, совершение обряда в майкопской традиции подчеркивает высокий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погребенных. Косвенно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во-первых, наличием трех культовых украшений в погребении, включая амулет-печать импорт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о-вторых, в инвентаре, который компактно сложен в углу погребальной ямы, присутствуют кости животных,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собой явно не остатки тризны или напутственной пищи покойным – 12 астрагалов, 5 бараньих коленных чашечек, у некоторых плоские основания затерты, две бабки крупных животных, три позвонка рыб из породы осетровых.

В-третьих, наблюдается 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обособленность (*рис. 2*) погребения из кургана «Радутка». В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 этому остальные майкопские погребения койсуг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имеющ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скудный сопроводительный инвентарь, расположены в рамках одного кургана 5 (*рис. 15*), который, возможн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одоплеменной могильник.

Следует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нуть условность и гипотетичность данных выводов, так как они сделаны на очень небольшой выборке и лок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 рамках од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Насколько они правомерны, покажут будущ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эти выводы дополняют наш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процессах, происходящих в энеолите – раннем бронзовом веке, на севере периферии майкопско-новосвободненской общности, позволяют усматривать и здесь влияния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ередовых культур древнейшей цивилизации Азии с местными племенами Нижнего Дона.